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342899

2020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민중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

- 5·18 민주화운동의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윤 만 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민중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

- 5·18 민주화운동의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활동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eople's Art & Cultural Activities on Changes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people's cultural movements and art activitie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 화 학 과

윤 만 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민중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

지도교수 : 백 수 인

이 논문을 문화학 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 화 학 과

윤 만 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윤만식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송 선 기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종 완 印

위 원 동신대학교 교수 김 경 주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백 수 인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권 印

2020년 7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TABLE OF CONTENTS ····· Ⅰ
LIST OF TABLES ····· Ⅳ
LIST OF FIGURES ····· Ⅴ
ABSTRACT ····· Ⅷ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3
제3절 연구 방법 ····· 6

제2장 본론
제1절 1970년대의 민족문화와 1980년대 민중문화 ····· 8
1. 1970년대 민족문화예술운동의 양상 ····· 8
2. 1980년대 민족문화예술운동의 양상 ····· 14

제2절 5·18민주화운동과 문화예술 활동 ····· 20
1. 1980년 광주의 좌절과 기억투쟁의 새로운 시작 ····· 20
2. 진실의 폭로와 확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 28

제3절 민중 개념의 등장과 민중문화운동 ····· 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창작의 소재, 창작의 주체 ····· 36
2. 전시관과 공연장에서 현장으로 ····· 38
3. 도서의 활자에서 현수막과 육성으로 ····· 40

제4절 기억의 시각적 재생과 집단기억 ····· 42
1. 타살의 시대, 죽음을 껴안는 비극의 형상화 ····· 42
2. 판화와 노래를 통한 민중적 정서의 표현 ····· 44

제5절 민중문화예술운동의 담론 형성 ····· 53
1. 5·18부터 6월항쟁까지의 민중문화운동론 ····· 53
2. 민중문화운동협의회와 민중문화운동론 ····· 57

제6절 6월항쟁 민주대장정과 민중문화예술 활동 ····· 59
1. 시위현장의 판과 굿 ····· 59

제7절 민중문화예술의 제도적 편입 과정 ····· 63
1. 광주비엔날레와 안티비엔날레 ····· 63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민중문화예술의 공간 ····· 65

제8절 민중문화예술이 사회변혁에 미친 영향 ····· 67
1. 예술 형식에서의 장르 결합 ····· 67
2. 민중문화예술 활동과 사회 변혁 ····· 71
3. 한국 민중문화예술과 아시아 민주화 투쟁 ····· 7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결론 ····· 78

<참고문헌> ····· 8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Table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민중 문화 운동 사료 주요 목록 ·· 12

Table 2. 민중 문화 운동의 시기별 구분과 주요 활동 단체(개인) ····· 18

Table 3. 궐기 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시민들과 주요 연설 내용 ····· 20

Table 4.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작, 배포되었던 「투사회보」의 목록 ····· 23

Table 5. 5월문학총서의 수록 목록 ····· 34

Table 6. 민주화 운동의 주요 경과와 민중 문화 운동의 상관성 개념도 ····· 7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목차

Figure 1. 제5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의 모습 ····· 23

Figure 2.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진 ····· 25

Figure 3. 민중문화연구회 조직표 ····· 27

Figure 4.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걸린 대형 걸개 그림 「오월에서 통일로」 ····· 28

Figure 5. 조선대학교 백악에 걸린 대형 걸개그림 「이철규 열사 정신 계승도」 ····· 29

Figure 6. 강연균 / 하늘과 땅 사이 1 ····· 37

Figure 7. 이한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문익환 목사 ····· 40

Figure 8.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대형 걸개그림 ····· 43

Figure 9.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의 원본 ····· 48

Figure 10. 민중문화 운동연합회의 '민중 예술의 전망과 과제 토론'을 위한 테이블페이퍼 ····· 55

Figure 11. 민중문화연구회가 주최한 '제1회 광주문화큰잔치' 리플렛과 '제3회 광주문화큰잔치' 프로그램 ··· 62

Figure 12. 안티비엔날레로 열린 '통일미술제'에서 5·18 구묘역에 설치한 만장 ····· 65

Figure 13. 김경주, 조진호 등이 오월시 동인들과 함께 한 작품집과 조진호의 판화가 표지로 사용된 시집들 ····· 6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 초록

민중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

- 5·18 민주화운동의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윤만식
Advisor : Prof. Baek Sooin
Department of Cultur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전후의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였다.

1970년대와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촉발된 사회변혁운동은 6월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1980년대까지의 시대와 공간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광주와 서울지역의 진보적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문예운동이 이후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 양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후에 문화,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는 보다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민족문화운동이 풍자와 해학의 현실 비판이었다면 1980년대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참여는 직설적이고 조직적이고 현장의 이슈와 직접 결합하는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5월시 동인들의 작품과 동인지 발간, 김남주 시인의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시작은 1970년대 김지하의 담시와는 전혀 다른 직설적 리얼리즘이었다.

문화와 예술인들의 장르가 결합되면서 총체극과 노래극 등의 다양한 공연이 기획, 연출되어 집회 및 현장에서 행해졌다. 1980년대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노래패들의 활동이었다. '젊은 청춘의 고뇌'가 1970년대 통키타와 포크송, 그리고 김민기 등에 의한 민요창작이었다면, 1980년대 노래패들의 활동은 5·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폭로하고, 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을 대변하고, 민중들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집회현장에서는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선전, 선동의 역할을 담당했다. 종교단체는 농민회와 노동자회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녹음하여 전국에 배포하는가 하면 노래극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녹음테이프로 제작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거나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삶과 투쟁 현장을 담아냈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변혁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개념이 재해석되었듯이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 역시 민중문화운동으로 조직화되고 '민중의 현실과 조국의 현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이 창작과 공연과 전시의 소재가 되었다. 창작 형식에서도 대형걸개 그림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전면에 내걸리고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판화에 광주의 오월과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새겨 넣었다.

판화 운동은 다른 장르들과의 결합도 다양하게 기획, 생산되었다. 오월시동인들과 광미공 회원들이 함께 제작한 오월 판화시집, 홍성담의 오월 판화교실, 노래집과 노래 테이프 등의 표지는 물론,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걸개그림과 전단지 등에도 그들의 판화가 자리했다. 1980년대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은 한국사회의 변화운동으로써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선봉대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과정에서 민중문화, 민중예술의 활동가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사례 중심의 실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정에 대한 상관성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심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보적 문화예술 운동, 사회변혁 운동, 문예운동, 사회참여, 오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People's Art & Cultural Activities on Changes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people's cultural movements and art activitie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Yoon Mansik
Advisor : Prof. Baek Sooin
Department of Cultur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targeted to investigate and confirm the influence of progress art and cultura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on social reform across Korean society. The social reform movements triggered by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alized procedural democracy through the June Democracy Movement. The time and space until the 1980s were mostly handled, focusing on the struggle of memory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progressive literary activities in Gwangju and Seoul and examined social changes they brought.

Since the experienc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1980, art and cultural activists' social participation started to get more cohesive and organized. While national cultural movements in the 1970s were mostly a metaphorical critique of the reality, social participation by cultural activists and artists during the 1980s started to become more straightforward and cohesive in direct connection with field issues. Literary coterie's work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ublication of donginji (literary coterie magazine) and writing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themed poems by Kim Nam-joo were straightforward realism which quite differed from Kim Ji-ha's ballades from the 1970s.

With the convergence of art and culture, diverse outdoor performances such as total theatre and singing theatre were held at the gathering site and other places. The most distinctive activities in the 1980s were the performances by noraepae (protest song club). 'The Agony of the Youth' was acoustic guitars, folk songs and production of folk songs by songwriters such as Kim Min-gi in the 1970s and noraepae's activities during the 1980s. They unveiled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presented people's painful lives and drew awakening and participation from them. At a protest site, they played a role of propaganda and agitation, boosting the spirit of struggle. In connection with farmers' associations from religious groups or labor unions, diverse songs were composed and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singing theatre-like documentary tapes were produced to make more people understan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describe laborers', farmers' and urban poor people's lifestyles and their protests.

As the concept of 'minjung (people)' was reinterpreted during the reform of Korean society in the 1980s, art and cultural activists' activities evolved into people's cultural movements. In fact, their non-negotiable fight against 'the reality of the country and people' became the source of creative activitie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In creative activities as well, large pictures were hung at demonstration sites, and May of Gwangju and people's painful lives were illustrated in wood printing which can be produced in large quantity. The convergence of such woodblock movement with other genres was also planned and produced in a diverse manner. Such wood paintings were found in protest placards, hanging pictures and leaflets as well as in the May Woodblock Collection of Poems co-produced by literary coteries from owolsi (May Poetry) and members of the Gwangju-Jeonnam Artist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ssociation, Hong Seong-dam's May Woodblock Class and covers of song collections and tapes. Such art and cultural activists' cohesive and direct activities in the 1980s were the forerunner of democratic movements as the reform of Korean society.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would confirm the roles and effects of people's art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since 1980 through empirical analysis, bringing more studies on correlations between people's art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reform movements.

Keywords: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Progressive Art & Cultural Movements, Literary Movements, Social Participation, Owolsi (May Poetr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1]이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정치, 사회학적 분석과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의 변혁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전환점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활동가들, 혹은 운동가들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중'이 문화와 예술에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문화와 예술이 지향하는 '심미적 요소'와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민중들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민중에 대해 조대협은, '계급'을 함의하고 있으나 계급을 넘어선 개념이며, 대중을 지칭하지만 그 단순성 역시 넘어선 개념이라고 말한다.[2]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진보 지식인들이나 예술인들은 '민족 문화, 민족 예술'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는 '민중 문화, 민중 예술'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민족 문화와 민족 예술, 민중 문화와 민중 예술의 개념과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곧 1980년대 이후 민중 문화 예술이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화란 자연 그대로의 상태와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범주에 해당한다.[3] 이러한 인간

---

1) 5·18민주화운동은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칭이 공식화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이 국가권력을 강점하고 있던 시기에는 '광주사태'로 명명되었고, 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했던 민주세력과 당사자들은 '민중항쟁'으로 표현되어 왔다. 본고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하나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전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항쟁의 정신을 계승, 기념, 기억하기 위한 이후의 투쟁 과정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의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신군부 세력의 광주학살 만행이다.

2) 조대협,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 운동문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2, 181쪽.

3) 정미라, 「광주의 문화담론과 5·18」,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15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이 지니는 고유의 범주인 문화와 예술이 사회 변혁에 기여하는 과정과 사회 변혁 운동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사례들을 확인함으로써 민중 문화와 민중예술이 한국사회의 변화 내지는 변혁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연구범위를 광주로 한정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며, 광주지역의 많은 민중문화 활동가들과 민중예술가들[4)]이 항쟁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목도하였고, 항쟁의 주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참혹한 현상은 도망갈 수도, 눈을 감아버릴 수도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곧 민주화운동에 복무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줄곧 우리 사회 전반을 규정했던 '광주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항쟁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중 문화 운동, 혹은 민중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이 어떻게 발현되었고, 민중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4) 민중문화활동가에서 '활동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민중문화운동에 조직적이든 개인적이든 인간의 보편적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를 통해 일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진 변혁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민중예술가에서 '예술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예술이라는 자기 고유의 수단을 통해 위와 같은 변혁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민중문화 활동가들과 민중예술가들의 대부분은 그 주체와 내용 면에서 겹치고 있다. 본고에서 '민중문화운동'과 '민중문화 활동가'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였다. 앞의 것은 조직적이며 집합적이라는 점에서, 뒤의 것은 그 운동에 참여한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민중 예술'과 '민중 문화'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조대엽은 "1980년대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이념은 민주주의, 민중주의, 반미주의로 특정지어질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1980년 5월 광주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연구한 학자들의 시각과 대체로 일치한다.

1980년대 사회운동은 '광주의 반성과 해석'[5] 을 통해 가능했다. 반성은 광주의 처절한 희생에 대한 기억이며, 해석은 '민중'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민중문화운동에서 광주의 처절한 희생은 집단기억을 재생하기 위한 모든 장르의 소재와 표현을 만들어냈고, '민중'의 재해석은 민중에게 질곡의 삶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맞섬으로써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변혁의 주체로 인식되었다. 더 나아가 '민중'은 소수의 특권적 지배계층과 대립 관계에 있는 피지배계급을 지칭하였다.

민중은 동질적인 단일계급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이 갖는 유연성과 포괄성은 실천적 투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른 해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에 대단히 높은 적합성을 갖게 되었다.[6]

최정운의 "1984년 5월 19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아, 5월이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는 5·18에서 민중을 발견하여 투쟁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였고, 민중은 세 가지 '민(民)'의 세 번째이자 앞의 두 '민'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고 정의하였다. 이어 민중문화 운동협의회의 창립 선언문을 인용하여 "80년 5월의, 독재를 타도했던 '민주'는,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외치던 '민족'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민중'은 5월 광주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부연하면서 "민족이 통일의 주체라면 민중은 민주화운동의 주체였다. 민중은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대중을 의미하는, 즉 최소한의 지배층을 제외한 포괄적 의미의 국민이었다. 민중은 동시에 계급적이며, 민족적이며, 정치적이자

5) 조대협, 위의 책 181~182쪽
6) 조대협, 위의 책 182~18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제적인 범주였다."고 했다.[7]

민중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었다는 점에서 두 견해는 일치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조대협은, 1980년대 사회 운동은 광주에 대한 반성과 해석을 통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민중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입장이며, 최정운은 삼민주의(민족, 민주, 민중)에 관한 1980년대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민중은 이미 변혁의 주체로서 준비되어 있었음이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이는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선언적, 계몽적 성향의 '민중'에 대한 인식이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운동과 사상논쟁의 중심에 자리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에 '민중'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한 이남희의 분석은, 위 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 호소력, 정서는 70~80년대 산물이니까 진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중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문화이다. 한국 지식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중 개념을 형성하고 이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저항적 시도를 해 왔다."고 말한다. 또한 민중이라는 개념이 시민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남희는 민중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과거의 역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민중은 광장의 주인, 역사의 주체로 자리 잡은 문화적 존재이며,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한 시민으로 대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8]

이러한 이남희의 견해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기의 정점에서 신군부 세력 중심의 극히 소수의 지배 권력과 민중들이 가장 치열하게 대치했던 1980년대로부터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민중은 광장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아직 진행형일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체제는 과거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단이라고 하겠다.

1970년대 민족 문화 운동에서의 '민중'이 추상적이고 다분히 관념적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민중'은 5·18민주화운동의 저항과 광주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보여준 기층 민중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구체화되고 사회

---

7)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 오월의 봄 출판. 2012년, 168~169쪽
8) 이남희, 유리, 이경희 옮김 『민중 만들기』, 휴마니스타, 2015. 120~12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변혁의 동력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중들의 현실을 주제로 하고 민중들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창작 활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이 '민중'을 사회 변혁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80년대 '민중'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소재이자 주제였으며, 운동과 창작의 주체였다.

정해구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1987년 6월항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주항쟁 이후에 민주화운동 주체들의 정신적 상황과 결합된 사회과학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급진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항쟁 이후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일부가 급진적 경향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된 흐름은 온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9)]

이러한 분석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현실과 6월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 과정을 체험한 1987년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년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행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격정의 시대를 온 몸으로 부딪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조건, 민중 문화 운동 주체들의 감성적 기저를 포함한 내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자 몸부림쳐 온 민중 문화 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미래의 민중 문화 운동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런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논점을 잡아갈 계획이다.

9) 정해구 외 2인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연구 총서 역사편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6. 180~181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5·18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한 그 이전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의 '민족' 문화 예술과 그 이후의 '민중' 문화 예술의 개념과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민족 문화 예술과 민중 문화 예술은 당대의 문화 예술 비평에서 시기별로 구분된 연구사적 개념이지만 이것을 1970년대 문화예술 운동과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 이후의 문화 예술 개념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980년대 한국 사회가 겪었던 격랑의 시기 동안 집회 및 시위와 수많은 시국사건, 특히 분신과 투신,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희생된 민족, 민주열사들의 장례의식에 이르기까지 민중 문화 예술 활동가들은 대부분의 현장을 기획하고 연출했다.

본 연구가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많은 작품들을 모두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 걸린 대형 걸개그림과 만장,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집단 신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연 등을 세세히 확인하는 일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이 목표하는 민중 문화 예술 활동이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과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민중'이라는 개념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전면에 등장하고, 서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급으로서의 민중, 일반 대중으로서의 민중의 개념을 넘어선 개념이라는 인식을 전제하였다.

민중문화운동론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특별한 사회 경험에서 배태된 연구 방법론이어서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 관점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해외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한 외적 타당성을 보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민중 문화 예술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각 장르와 주체들의 한정된 과정을 확인하는 것일 뿐 민중 문화 예술이 사회 변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10]의 주제와 형식, 그 주체들의 성향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기에 대한 또 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첫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이 변혁 운동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사람, 즉 '민중'이 삶의 주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전개되고,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10) 민중 문화 운동론. 이와 관련된 정치, 사회적 담론의 기제, 여러 장르의 민중 예술 작품, 문화 운동 단체와 집단의 선언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본론

제1절 1970년대의 민족문화와 1980년대 민중문화

1. 1970년대 민족문화예술 운동의 양상

김지하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부패한 권력층을 통렬하게 풍자한 『오적』을 발표하고 구속되었다가 그해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시인』 6, 7월 합병호에 시론 「풍자냐 자살이냐」를 발표했다. 이 글은 김수영 시인에 대한 평론의 형식이지만 자신의 문학관과 역사관은 물론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김지하는 「풍자냐 자살이냐」에서 김수영의 시 「누이야, 풍자 아니면 자살이다」를 패러디해 시인은 풍자와 자살이라는 대립에서 풍자를 선택함으로써 물신과의 투쟁에서 결국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김지하가 말하는 풍자는 물신으로 상징되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그의 담시 「오적」이 다섯 유형의 권력자들을 짐승에 비유해 통렬하게 비판한 것처럼 시인에게 풍자는 당대의 지식으로서,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었다.

김지하를 비롯한 1970년대 시인들 중에는 투옥과 해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양성우의 '노예' 수첩 필화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잡지에 기고한 글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당시 '자유실천문인협회' 소속 문인들이 양성우의 시편을 모아 시집 『겨울공화국』을 출간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많은 문인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인이 『국토』 연작시를 쓴 조태일과 고은이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결성은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문인들의 석방 운동에 참여한 진보적 지식인과 문인들이 개인적 수준의 반유신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조직화를 통해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반유신 운동을 전개하자는 뜻을 모아 출범하게 되었다. 1974년 11월 광화문에서 '문학인 1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출범이 공식화되었다.[11)]

1970년대 지식인들과 문인들의 유신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평론과 시론, 문학작품 등으로, 1966년 창간된 『창작과 비평』, 1970년에 창간된 『문학과 지성』, 두 계간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두 계간지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진보 지식인들의 사회 비평을 담아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현실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신독재에 대한 체제 비판에 머물지 않고 민족분단의 현실,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 교육, 문화 등 사회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평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여기서 1970년대 '민족 문학', '민족 문화'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서 '민족'은 유신독재가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민족주의의 대항적 개념으로 자리했다.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사회 통제가 엄혹했던 시절이었으므로 '민중'이라는 개념을 표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계간지를 통해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이 천착했던 '민족'의 개념 안에는 민족 모순의 해결과 사회 변혁의 주체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민족문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그 범주 안에서 활동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가는 오윤과 같은 미술가와 임진택 등과 같은 연출가, 김민기와 같은 대중가수들이 있었다. 미술계는 이후 '현실과 발언'이라는 동인의 결성으로 그 활동이 이어졌으며, 임진택의 민족극 창작 및 공연 활동은 전국 주요 대학의 민속극회, 탈춤반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민중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까지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민족문화운동은 1980년대의 급격한 민중문화운동의 변화에 대한 바탕이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시작된 탈춤반의 활동은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예컨대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벌어진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여러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탈춤반은 곧 운동권'으로 인식될 정도

11)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ttps://archives.kdemo.or.kr/mai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였다.

1979년 10. 26사건에 의한 박정희 유신독재의 붕괴는 대학가와 정치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건 바로 다음 날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만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를 부활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사학 비리와 학교 운영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걷어내기 위한 학내 투쟁을 본격화했다. 김대중, 김영삼 등의 야권 정치 지도자들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정치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노동계의 투쟁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18년 동안 억압받아 온 사회 전반의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한편, 10. 26 박정희 시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이 속한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군부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신군부 세력들은 박정희 시해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였다. 이른바 12·12 군사 반란이었다.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회와 운동권이 학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들은 국가 권력을 강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80년 3월에 전국의 대학들이 개강을 하면서 대학생들은 학내 문제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로 투쟁방향을 바꾸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 총학생회가 집회와 시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5월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마친 후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그 정점이 5월 15일이었다. 서울역을 가득 메운 학생시위대는 청와대로 진격할 것인지? 해산할 것인지?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전국의 총학생회장단이 격론을 벌인 끝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모인 전국총학생회장단은 결국 해산했다가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하였고,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결행했다.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학내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었던 기간을 '서울의 봄'이라고 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신군부 세력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장단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국회의 봉쇄를 비롯한 모든 헌정질서를 중단시켰다. 서울의 봄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전국의 주요 대학마다 계엄군이 진주하여 학교에 상주하였다. 모든 대학에 휴교조치가 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려졌다. 일시에 정국이 얼어붙었고, 대학 총학생회 지도부와 운동권 조직원들은 피신하거나 예비검속으로 잡혀 들어가야 했다.

총학생회의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된 대학가의 다양한 문화 활동가들 역시 일시적으로 몸을 피하거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에서는 극단 '광대'가 1979년 함평 고구마 사건을 마당극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등 유신정권 말기부터 민중 문화 운동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서도 탈춤반 등의 동아리 활동이 잠시 활성화되다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몸을 피한 극단 광대의 구성원들은 당시 녹두서점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정국의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따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경계를 구분함에 있어 유신정권의 붕괴를 가져 온 1979년의 10·26사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록 1980년 3월 전국 대학이 개강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학가에 민주화의 바람이 일었고, 이와 함께 대학의 집회에서 문화와 예술 분야의 활동가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5월 17일 이후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의 태동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서도 4년여가 지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의 극단 '광대'에 소속된 문화와 예술 활동가들은 항쟁의 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동안 들불야학의 강사들과 극단 '광대' 회원들은 광주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계엄군과 맞서 싸울 것을 독려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밀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는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자행한 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였고, 유인물을 만들고 시위대열에 참여했던 문화운동 활동가들은 도청 앞에서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광주는 5월 27일 자행된 계엄군의 재진입 작전에 의해 참혹하게 진압되었고, 항쟁의 현장 곳곳에서 활동했던 문화운동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다행히 몸을 피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수를 하거나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다.

본 연구에서 거명되는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군으로 참여했거나 유인물을 제작하고 궐기 대회를 진행했던 당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자들이었다. 특히 극단 '광대'의 대표를 맡고 있던 박효선은 항쟁지도부의 홍보부장으로 마지막 5월 27일 새벽까지 도청에서 저항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10. 26사건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동안 광주지역의 민중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에게는 잔인한 세월이었다. 민족사에서 미증유의 광주 만행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에 몸부림쳐야 했다. 동시에 참혹한 세월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책무 또한 이들에게 주어졌다. 학살과 저항, 그리고 또 다시 참혹한 학살을 경험한 민중 문예 활동가들은 1984년을 지나면서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민중 문화 운동 사료 주요 목록[12)]

보기 / 민문협(민중문화 운동협의회), 민문연(민중문화 운동연합), 민언협(민주언론운동협의회), 자실(자유실천문인협의회), 광문연(광주민중문화 운동협의회)

자 료 명	생 산 자	제 작 일
민문협 창립발기문	민문협창립준비위원회	1984. 4. 14
민문협 창립보고서	민문협	1984. 4. 30
문화탄압백서	민문협, 민언협, 자실	1985. 3. 1
『광주문화』 창간호	민중문화연구회	1985. 3
'85문화선언 - 참 민중과 참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운동을 향한 대열을 가다듬자	민문협	1985. 4. 13
민중 미술과 함께 보는 80년대 민중, 민주 운동 자료집 1, 2	민문협	1985. 8. 10

12) https://archives.kdemo.or.kr/main(검색어 - 민중 문화 운동)
오픈아카이브에 "민중 문화 운동"으로 검색할 경우 총 423건의 자료가 검색되지만 많은 자료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 변혁 운동과 민주화운동 단체 관련 사료들이 많다. 이 목록에 포함시킨 내용은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 과정에 해당하면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7인에 의한 판화 지상전 도록	서울미술공동체	1985.
가톨릭문화 운동협의회 창립기념대회 자료집	가톨릭문화 운동협의회	1986. 4. 21
'87문화 선언 - 민주의 횃불들고 민족자주의 대낮으로	민문연	1987. 4. 11
민중 예술의 과제와 전망 - 민중 문화 운동연합 "민중 예술한마당" 이야기마당	민문연	1987. 7. 15
'신명' 소식지 창간호	놀이패 신명	1987. 4. 28
연희대본 자료집(80년 전후 대학현장 공연들의 대본 모음집)	민문협	
노래패 친구 노래발표회 자료집	민문협	1988. 4. 8 / 10. 15
5월 혁명기획 - 5월 광주민중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문협	1988. 4. 25
5월 예술제 님을 위한 행진곡 -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문연 음악분과	1989. 5. 13
민중 문화 운동의 현주소	한국현대정치사상연구소	1989. 11. 1
민족해방운동과 미술	광주시각매체연구소	1989. 11. 5
5월 민중 문화 운동 투쟁선언문	광문연	1990.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19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의 양상

5·18민주화운동을 겪기 이전의 문화운동과 예술 활동이 선언적, 계몽적 성격이었다면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는 보다 선명한 운동의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항쟁 기간 동안 광주 민중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 정신과 공동체의 경험은 1970년대 민족 문화운동 과정에서 단순히 피지배자로서의 '민중'이라는 감성적 해석에서 '사회 변혁과 역사를 주도하는 민중'으로 재해석되었고, 당연히 문화 운동과 의식적인 예술 활동의 소재와 주제, 주체가 민중으로 집중되었다.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들이 당한 광주에서의 참혹한 희생이 곧 주제이면서 곧 주체일 수밖에 없었다. 문화 운동도 예술 활동도 민중이 직접 참여하여 조직화되었다.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문화 운동과 예술 창작이 1980년 5월의 광주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 초반을 거친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 활동가들은 1985년 이후 새로운 각성을 통해 민중문화 운동을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그 노선과 목표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기관지 『민중문화』 창간호에서 "이제 문화운동은 커다란 전환기에 와 있다. 80년대 초반의 문화운동이 지식인 문화운동이 수행할 수 있는 이념 싸움의 마지막 몫을 수행한 것이라면 다음 단계의 문화운동은 지식인과 기층 민중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회로의 개발, 지식인 주도의 문화운동에서 생활 담당자들이 주도하는 문화운동으로의 이행이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13] 그러나 1970년대의 대학 사회를 배경으로 한 전통 연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마당극, 마당굿, 놀이양식 등은 자각된 집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핵심집단의 전투적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대중화에 있어서는 제약되는 부분이 크다"고 분석했다.[14]

1985년 5월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가두 진출과 광주성지순례 등으로 집회 및 시위 상황이 변하자, 민

13)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중문화의 새로운 마당을 위하여」, 『민중문화』 창간호, 1984. 6.
14) 위의 자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들이 결합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따라서 민중문화운동 진영에서는 대학 중심의 문화운동을 넘어 민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중문화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들의 역동적이면서 역사 주체적인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은 민중들이 전면에 서지 않는 한, 최소한 민중들과 결합되지 않는 한, 사회 변혁 운동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시기에 광주에서는 '민중문화연구회'가 기관지 『광주문화』에 게재한 '민중문화연구회 선언'에서 "5월을 온몸으로 체험한 우리들은 광주 오월의 그 함성이 바로 민족 통일을 향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5년이나 지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의 오월은 이 땅 한반도의 제 모순을 극복하고 민중 해방과 민족 통일의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던지려 한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화적 노력은 통일의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세상, 대동의 세상을 향하여 가해지고 있다."고 했다.[15] 이는 민중 문화 운동이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한 부문으로서가 아니라 변혁 운동의 총체적 집합의 중심에 설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복무할 것을 제안했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970년대 민족문화에서 '민족'과 1980년대 민중문화에서 '민중'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의 민족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허용하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삶에 드리워진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의 실체로서 민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개념 안에 민중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문화운동과 예술활동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중'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모순의 근원인 민족 분단, 여기에서 기인한 독재와 매판자본 등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어야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피지배 세력으로서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인 민중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에 1980년대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의 담론에서 '민중'은 민족 모순을 극복하고 민주를 실현할 주체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민중 문화

15) 홍성담, 「민중문화연구회 선언 - 광주 5월은 민족통일의 큰 흐름 속에 있다.」, 『민중 미술과 함께 보는 80년대 민중, 민주운동자료집(Ⅱ)』, 민중문화운동협의회, 학민사, 1989. 14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운동 단체와 민중 예술의 활동가들 모두 '민중의 삶'과 '민중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들이 민중의 자각과 참여, 그리고 집회와 시위 현장, 노동 현장 등에서 그들의 집단 신명을 고양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민족'이라는 개념과 구별되는 것이다.

유신독재의 붕괴로 찾아온 1980년대 초반 광주의 진보적 문예 활동가들은 전남대와 조선대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전남대는 연희와 문학과 노래 부문에서 조선대는 미술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1980년 초반의 민주화 운동 열기는 신군부의 5·17 쿠데타로 사실상 막이 내렸지만 광주에서는 5월 15일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가진 민주화 대성회를 통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더라도 전남대 정문에서 모이기로 결의한 후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실제 양 대학의 총학생회가 예상했던 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약속대로 전남대 정문에 모여 산발적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전남대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광주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에서는 극단 '광대'가 결성되어 이미 '함평 고구마 사건'을 비롯한 '돼지풀이' 등의 마당극 공연을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고, 극단에 소속된 단원들은 5·18민주화운동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들불야학과도 함께 활동하였다. 학내에서는 탈춤반을 비롯한 여러 동아리들이 집회와 시위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부활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민주화 투쟁의 향후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남대 총학생회는 5월 17일 저녁부터 예비검속으로 많은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총학생회와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우선 몸을 피해야 했다. 따라서 5월 18일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의 시위는 전남대와 조선대의 총학생회와 학생운동권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고, 예상치 못한 공수부대의 잔학한 만행이 광주 시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에서 퇴각한 후 몸을 피했던 전남대 탈춤반 선후배들과 극단 광대 소속 단원들이 사태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으로 들어갔고, 가장 먼저 희생자들의 시신을 확인하는 등의 시급한 현안들부터 수습에 나섰다. 당시 극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 광대 소속 단원들과 전남대 탈춤반 출신 선후배들은 먼저 시민들을 모아 궐기 대회를 준비했다. 일부 진보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은 이전부터 총을 들고 시민군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광주에 진입하여 학살을 자행하고 도청에 남아 있던 시민군들과 항쟁 지도부 전체를 체포한 그 순간까지 이런 활동을 지속했다. 따라서 이들은 열흘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참혹한 상황을 대부분 직접 겪었거나 목격했던 당사자들이었다. 5월 27일 새벽 도청에 남아 마지막 저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갔고 다행히 몸을 피했던 사람들 역시 한 두 달이 지나면서 모두 자수하거나 체포되어 상무대 영창에 구금되어야 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시민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년 정도가 경과한 후였다. 물론 이 2년 동안 홍성담과 같은 미술인들은 5·18희생자들을 넋을 위로하는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노동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할 테이프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영어의 몸이었거나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난 열흘 동안의 비극은 어떻게든 전국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투쟁의 대열을 정비하게 만들었다. 항쟁 기간 동안 광주 공동체를 구성했던 민중들에게 좌절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당장의 중요한 과제였다.

항쟁 기간 동안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시민군의 모습, 헌혈하는 남녀노소들의 모습, 주먹밥 공동체를 만들어낸 시장사람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중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언젠가 이들에 의해 좌절된 광주의 역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란 신념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민중문화운동으로, 민중예술의 활동으로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들였을 지도 모른다.

1984년 12월, 드디어 민중문화연구회가 창립되었고, 홍성담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제 '민중 문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광주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은 서울 지역의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진보적 문화와 예술분야의 인사들에게 민중 문화 운동에 관한 여러 제안들을 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놓았고, 그 결실의 하나로 1984년 4월, 서울에서 민중문화 운동협의회가 결성될 수 있었다.

민중문화연구회는 이듬해 4월 광주문화큰잔치를 개최하여 당시 어려운 '오월시' 동인, '글과 현장', '용봉문학회', 극단 '광대', '전남대 탈춤반', '우리소리연구회', '조선대 미대 서클',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민중 문화 마당을 펼쳤다. 민중문화연구회는 3회째 광주문화큰잔치를 개최하였고, 회를 거듭할 때마다 민중 문화와 민중 예술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 물론 매 행사 때마다 주제 강연을 포함시켜 민중들의 자각과 민중들의 현실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 활동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민중문화연구회는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의 전국 배포, 「광주여 오월이여」 다큐멘터리 카세트테이프 제작, 노래패와 마당극 공연, 농촌 현장과 노동 현장의 풍물 강습을 통한 의식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전국에 알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광주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인들의 활동은 5·18민주화운동의 투쟁으로, 민중들의 자각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으로,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장르와 장르가 연합한 공연으로 민중들의 신뢰를 확장해 갔다. 특히 매년 5월이 되면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와 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 등을 기획하여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여기에서는 민중 문화 운동의 1980년대 이후 시기별 구분과 주요 활동 단체를 알아본다.

표 2. 민중 문화 운동의 시기별 구분과 주요 활동 단체(개인)

구분	민중 문화 운동의 주요 전개 과정	단체 및 민중 예술 활동가
~1980	-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극단 광대 회원들과 전남대 탈춤반 출신들에 의해 투사회보 등의 유인물 제작과 광주해방 기간 동안 민주수호범시민궐기 대회 등을 주도하였으며, 항쟁지도부에 참여하거나 시민군으로 직접 항쟁에 참여	- 극단 광대 - 홍성담, 박효선, 김태종, 김선출, 윤만식, 전용호, 김윤기 등
~1983	- 구속되었던 문화 운동 활동가들이 석방된 후 항	- 홍성담, 강연균, 나상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쟁 당시 제작했던 유인물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 시작 -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던 미술인들이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를 결성하고 5·18희생자 위령을 위한 미술제를 개최하였고, 개별적으로 5·18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는 등의 활동 시작 - 학원자율화조치로 대학의 문화 운동 활동가 조직화 시작 - 5월시 동인 결성 및 동인시집 발간 등의 활동	
~1985	- 민중문화연구회 창립 및 광주민중 문화 큰잔치 개최 - 민중문화연구회의 각 분과위 활동 조직화 및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창작 활동 본격화 -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 제작 및 보급 - 시민미술학교 개설 및 운영 - 녹음테이프 '광주여, 오월이여' 다큐멘터리 제작	- 오월시 동인, 민중문화연구회, 시각매체연구소, 노래패 '친구', 우리소리연구회, 용봉문학회, 기독교 EYC,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1987	- 민중문화연구회를 광주민중 문화 운동협의회로 전환하고 각 부문별 소그룹 모임 활성화와 문화 운동 및 예술창작 활동 전개 - 집단 창작을 통한 대형 걸개그림 -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민중 문화 운동 조직의 활발한 활동 - 민중 문화 운동의 노동과 농촌 현장 연계	- 각 대학의 노래패의 집회 및 시위 현장의 공연 - 풍물패의 시위현장 활동과 농촌, 노동 현장 활동 - 각 대학의 미술패 공동 창작 본격화
~1989	- 민중 문화 운동 단체의 침체기 - 민중 문화 운동의 쇠퇴에 따른 장르별 민중 예술 창작의 소모임 활성화 - 민족예술인총연합으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 재결집	-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 민족예술인총연합
1990~	- 구 소련 체제의 붕괴와 냉전 질서의 해체, 절차적 민주주의 실행 등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투쟁 노선의 변화와 분열 - 경제, 사법, 환경 등을 비롯한 전문 영역의 시민사회 운동의 활성화에 의한 민중의 주체성 약화 - 민중 문화와 민중 예술의 현장성이 약화되고 소그룹 단위의 전문 영역으로 분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5·18민주화운동과 문화예술 활동

1. 1980년 광주의 좌절과 투쟁의 새로운 시작

광주에서 활동했던 많은 민중 문화 활동가들과 민중 예술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내내 현장에 있었다. 민중 문화 활동가들과 민중 예술인들은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광주를 빠져나간 이후부터 시작된 '광주공동체' 기간 동안 도청 앞 광장의 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울분에 찬 시민들은 서로 무대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자 했으며, 이 중에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궐기 대회의 분위기를 돋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무대 위로 올려 보냈다. 고등학생에서부터 총을 들고 계엄군과 맞서 싸웠던 시민군은 물론, 손자를 잃고 시내 병원마다 헤매고 다녔다는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원고도 없이 열변들을 토해냈다.

표 3. 궐기 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시민들과 주요 연설 내용

날짜	회차	연설의 내용	작성자	연설자	비고
23일	1차	시민 대표 성명서	홍희윤	홍희윤	세계기록유산
		노동자 대표 성명서	김영철	김영철	세계기록유산
		농민 대표 성명서	윤기현	윤기현	원고 소실
		학생 대표 성명서	김선출	최인선	원고 소실
		고등학생 대표 성명서	최치수	최치수	원고 소실
24일	2차	제목 미상	미상	김영철	원고 소실. 영상만 존재 (독일 NDR 비디오)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정유아	최인선	세계기록유산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미상	미상	세계기록유산
		민주시	이윤정	이현주	
		시국선언문	미상	이현주	『5·18성명서(1)』 580쪽[16]
		시민 자유 발언: 아주	없음	아주머니	원고 소실. 영상만 존재. (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날짜	회차	연설의 내용	작성자	연설자	비고
		머니			일 NDR 비디오)
25일	3차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	정해직	미상	세계기록유산
		전국 종교인에게 보내는 글	윤기현	미상	세계기록유산
		전국 민주 학생에게 보내는 글	김선출	미상	세계기록유산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김태종	이관택	『5·18성명서(1)』, 81쪽.
		왜 우리 노동자들도 총을 들어야 했는가	미상	나명관	원고 소실. 증언만 존재함. (현사연 4003)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김태종	김태종	세계기록유산
26일	4차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정현애 김윤기 윤기현 김태종 등	미상	세계기록유산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공동작성	미상	세계기록유산
		과도 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이윤정	미상	세계기록유산
		80만 민주시민의 결의	김태종	미상	세계기록유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7]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이규현	미상	세계기록유산
26일	5차	한국 정치의 문제점	정상용	정상용	『5·18성명서(2)』, 136-7쪽.
		한국 경제 구조의 모순	윤강옥	미상	원고 소실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미상	미상	세계기록유산
		시민 결의문	김태종	김상집	『녹두서점의 오월』, 204쪽.)
		시민 자유 발언대: 스님	없음	스님	원고 없음. 증언으로만 존재. (2017년 국사편찬위원회, 『1970년대 광주 문화 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김태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날짜	회차	연설의 내용	작성자	연설자	비고
		시민 자유 발언대: 여성	없음	여성	원고 없음. 증언으로만 존재. (현사연 4007)
		시민 자유 발언대: 여교사	없음	여교사	원고 없음. 증언으로만 존재. (현사연 4007)
		시민 자유 발언대: 아주머니	없음	아주머니	원고 없음. 증언으로만 존재. (현사연 4007)
		시민 자유 발언대: 할머니	없음	할머니	원고 없음. 증언으로만 존재. (현사연 4007)
		시민 자유 발언대: 고등학교 교사	없음	고등 교사	원고 없음. 증언으로만 존재. (현사연 4007)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열렬히 반응했다. 그러나 당시 광주는 계엄군이 퇴각했다고 하지만 언제, 얼마나 잔인하게 또 다시 광주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은 두려움이나 며칠 전 가족과 친지들을 계엄군의 학살로 잃은 당사자들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역설적이게도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더 밝았고 더 의연해 보였다.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상무관에서는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데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분위기는 그 곳의 상황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광주 시민들 힘으로 계엄군을 물리쳤다는 자신감도, 궐기 대회의 열기와 함께 달아오르는 데서 오는 표정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신마다의 뜻을 표현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민군으로 참여한 사람의 증언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현채 씨는 자신의 증언록에서, “시민들은 계속 도로를 치우고 있었다.

16) 5.18민주희생자유족회 편, 『5.18 성명서』. 2011.
17)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출판사, 증보판, 20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 제5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 대회의 모습

도로마다 널려 있는 상흔과 곳곳의 상처를 치우고 메꾸어가고 있었다. 길거리를 치우는 시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확실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많은 피를 흘리고도 눈물에 얼룩져 있거나 무작정 분노에 휘말리지 않는 묘한 평온의 인상이었다."고[18] 당시 분위기를 회상했다. 여러 개념으로 표현되는 광주 공동체가 도청 앞 광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중 문화 활동가들과 민중 예술인들에게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다시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무참하게 쓰러져야 했던 광주의 상황이 더 고통스럽고 무겁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억은 민중 문화 운동과 예술의 창작 과정에서 항상 의식을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표 4.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작, 배포되었던 「투사회보」의 목록

날짜	회차	비고
5월 21일	전남민주회보	투사회보 1호로 추정됨. 『5·18성명서(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73쪽.
5월 22일	투사회보 2호	『5·18성명서(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72쪽.
5월 2X일	투사회보 3호	원고 소실

18) 김현채,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 - 무등산 깃발』, 도서출판 광주, 1987. 4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월 2X일	투사회보 4호	원고소실
5월 23일	투사회보 5호	『5·18성명서(2)』,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7쪽.
5월 23일	투사회보 6호	『5·18성명서(2)』,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7쪽.
5월 24일	투사회보 7호	『5·18성명서(2)』, 5·18민주유공자유족회, 65쪽.
5월 2X일	투사회보 8호	원고소실
5월 26일	민주시민회보 9호	『5·18성명서(2)』,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15쪽.
5월 27일	민주시민회보 10호	27일 새벽 진압으로 배포되지 못함. 『5·18성명서(2)』,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17쪽.

더구나 가슴과 머릿속에는 열흘 동안 광주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글과 말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미 열흘 동안의 광주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 폭도요,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 왜곡된 채, 모든 진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었다. '5월 광주'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순분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듯 표현의 한계와 외부로부터의 통재, 두 가지 억압 상황을 체험하였다. 표현의 한계는 또 다시 죄책감으로, 외부로부터의 재갈은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공포로 작용했다.

"그들의 경험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하려 하면 응어리진 가슴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자신의 말이 너무나 무의미해져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말은 초라한 배신자로 전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규정하는 타인의 폭력적 언어 앞에서 초라해져 5·18의 경험은 찌그러지고 마는 것이 5·18담론의 현실이었다."[19]

최정운은 현대사사료연구소가 198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수록한 『5월광주항쟁사료전집』을 일곱 번 읽고 나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문병란도 「그대의 무덤 앞에 서면」이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한다. 적어도 이런 침묵의 기간은 1985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대의 무덤 앞에 서면 벌써 우리들의 입은 얼어붙는다.
그대는 나에게는 하나의 채찍 가책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

19) 최정운, 앞의 책, 403~40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원히 사는 새로운 윤상원이로 탄생해 다오.

-문병란, 「그대의 무덤 앞에 서면」의 일부-

1983년 전두환 정권은 '학원자율화' 조치를 단행했다. 대학교에 상주하고 있던 정보 기관원들과 경찰 병력이 철수하였고, 총학생회가 부활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무리 탄압이 있어도 탈춤반과 같은 동아리들이 대학마다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면 여인숙에 숨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등사하고 새벽에는 거리로 나가 뿌리던 그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그렇다고 학교 안이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지만 지난 3~4년 동안의 학교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 여전히 '5월 광주'는 침묵의 대상이어야 했지만 전국 주요 대학의 탈춤반과 같은 동아리들은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고야 말 그런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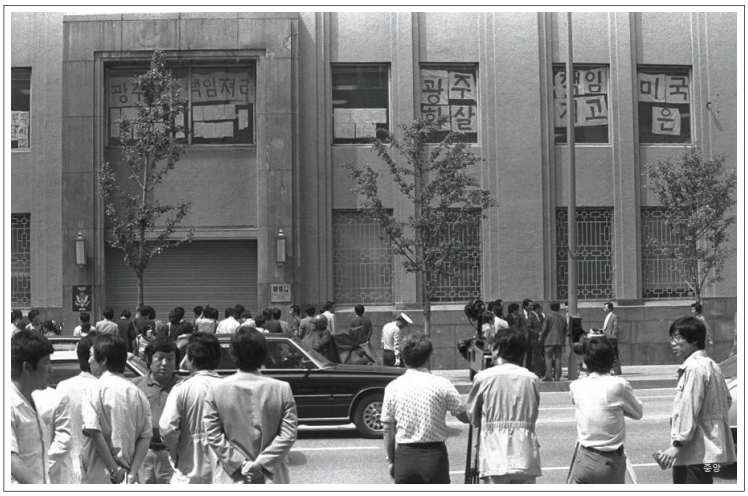


그림 2.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진[20]

20) https://fishes1272.blog.me/22130568723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85년은 여러 측면에서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사회변혁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였다. 우선 2월 12일 치러진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민당이 민정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대학가에서는 5·18정신 계승과 '광주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해 5월 23일 서울미문화원을 대학생들이 기습 점거하고, "광주학살! 미국은 책임져라!"고 외쳤다. 비로소 '5월 광주'의 이야기가 대학생들에 의해 세상 밖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숨겨진 채 은밀하게 돌고 돌던 '5월 광주'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전남대 삼민투 소속 대학생들이 광주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역시 5·18 진상규명과 광주 학살을 방조한 미국의 책임을 물었고, 미국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5월 광주'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당시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1980년 이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당시의 표현은 광주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발표해야 했다. 물론 철저하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며, 광주사태의 기본입장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기는 했지만 국방부장관의 발표는 5·18 진상 규명 투쟁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지형의 변화는 문화 운동의 활동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작 현장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만 담고 있었던 많은 광주지역의 민중 문화 활동가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은 의심을 낳았고, 그 의심을 진실로 바꿔놓으려는 '궁금한 진실'을 문화와 예술로 전달해야만 했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중문화운동은 좌절의 광주를 벗어나 개인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 전술이 논의되었다. 그것은 민중문화운동을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민중문화운동은 이렇게 진실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강요된 침묵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자신들 스스로 감추어 둔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진보적 문예 활동을 시작한 그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성담이 주도한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였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과 씻김의 야외전시회를 시작으로 5월 연작 판화 작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이 이루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궐기 대회를 주도하고 시민군으로 직접 참여했던 많은 문예 활동가들이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이들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살아남은 자'의 몫으로 여기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하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판화를 제작하고 벽시를 붙이는 등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먼저 간 희생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의기투합하였다. 이렇게 광주지역 문예 활동가들은 1984년 12월 20일 광주가톨릭센터 7층에서 광주 최초의 민중 문화 운동 단체인 '민중문화연구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민중 문화 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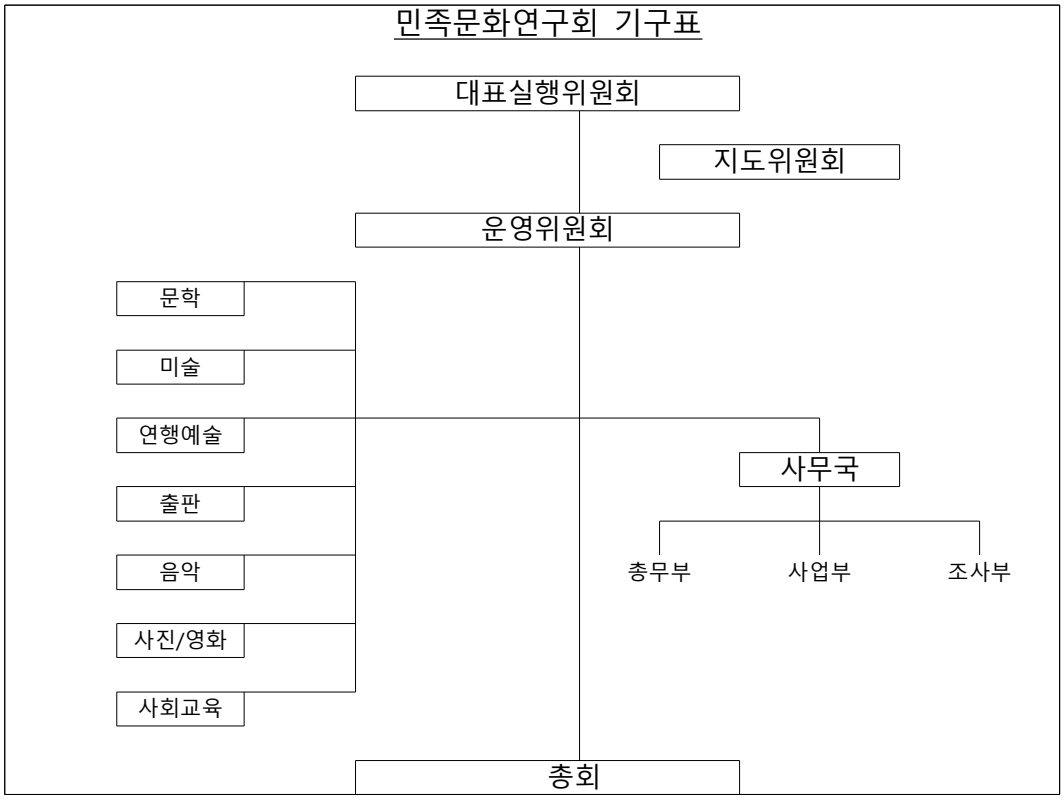


그림 3. 민중문화연구회 조직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진실의 폭로와 확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문학은 허구이며 은유와 비유에 의한 간접화법의 산물이다.’ 이런 통념은 1980년대, 문학 분야의 문화 운동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미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량 복제가 가능한 판화가 투쟁 현장에서 유인물로 뿌려지고, 깃발로 나부끼고, 강력한 시각 매체 역할을 했던 걸개그림[21]이 현장에 걸렸다.

1985년 민문연이 주최한 광주문화큰잔치에 등장했던 「민중의 싸움」[22]이 첫 걸개그림이었고, 대표적인 작품은 5·18민중항쟁 계승 8주년 기념 오월제 기간에 전남대학교 미술패 ‘마당’이 중앙도서관 전면에 걸었던 「오월에서 통일로」였다.[23] 조선대에서도 이철규 열사의 사인 진상규명 투쟁 과정에서 대형 걸개그림으로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림 4.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걸린 대형 걸개그림 「오월에서 통일로」

21) 임종영, 『호남문화연구』 제57권 ‘1980년대 광주지역 걸개그림에 대한 연구’, 211쪽~212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22) 민중 문화 운동 과정에서 제작된 최초의 대형 걸개그림이나 그 원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23) 정명중, 「광주의 5월문화 운동」, 『아시아 문화』 2015년 5월호,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5. 화보. 85~8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 조선대학교 백악에 걸린 대형 걸개그림 「이철규 열사 정신 계승도」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는 1980년대 판화 운동의 시작이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정기적으로 간행했던 각종 자료집과 기관지의 표지에 홍성담, 김경주, 조진호 등의 판화가 자리했다. 홍성담은 시민 판화 교실 등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를 시도했으며, 민중이 직접 미술창작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문학에서는 김준태의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를 시작으로 5월시 동인들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월시 동인들의 시작(詩作)은 곧 변혁 운동의 참여이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실재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시로 옮겨졌다. 1981년 출발한 오월시 동인들의 활동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부채 의식을 가진 채 폭동이라는 유언비어와 싸우는 일"[24]이었다.

오월시 동인들의 활동이 직설적이고 5월 광주의 현장을 증언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광주의 시대적 상황을 시로 옮기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암묵적 반영이었다.

24) 이승철, 「오월문학포럼-통일을 대비하는 오월문학:오월문학사 정립을 위한 문학포럼」, 5.18 기념재단, 2018. 5. 19. 1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말할 수 없으므로 양식을 파괴한다."[25]고 했던 황지우는 광주의 증언보다는 광주의 진실에 눈감은 시대 상황을 시에 담고자 했다. 광주의 진실을 증언하는 일이나 광주의 진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옥중시 「학살」로 유명한 김남주의 연작시는 광주에서 열흘 동안 자행되었던 계엄군의 만행을 파노라마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25)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198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고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리
(김남주의 「학살 1」 전문)[26]

소설의 5·18형상화는 더 늦게 시작된다. 1988년 홍희담의 「깃발」과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 출발하여 1998년 임철우의 『봄날』, 2000년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 같은 해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이르기까지 소설에서의 5·18민주화운동은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체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여러 유형의 트라우마를 소재로 하고 있다.

1980년대 문화 운동에서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노래패들의 활동이다. 모든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이들의 노래는 참여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행진곡 풍의 단조로운 운율은 시위와 집회를 이끌었고, 처연함과 비장함을 자아내게 하는 단조는 모든 의례에서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확인된 민중들의 삶을 회상하는 집단기억을 이끌어냈다.

전국의 대학마다 노래패가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활동했다. 전남대학교의 노래패 '친구'는 '광주출정가'를 비롯한 다양한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들은 민중가요로 전국의 모든 시위 현장에서 불리게 된다. 노래패는 운동 가요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극을 만들기도 하고 연극과 시와 노래가 결합한 총체극을

26) 김남주, 「학살 1」, 시집 『나의 칼 나의 피』, 실천문학사, 198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마당극과는 또 다른 무대 공연의 형식이었다.

연극에서도 1980년 광주의 이야기는 민중들의 현실적 삶을 확인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극단 '토박이'의 「금희의 오월」(박효선 희곡, 연출)은 무대에 올려진 최초의 연극이며, 놀이패 '신명'(윤만식 대표 공동창작, 공동연출)의 「일어서는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최초의 마당극으로 서울 피카디리 극장에서 실시한 제1회 전국 민족극한마당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이금희 씨의 증언[27]에 바탕을 둔 「금희의 오월」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의 마지막 항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이정연'이란 인물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암울한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삶과 정서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은 1988년 초연 당시의 버전과 1997년 다시 각색된 버전 두 가지가 있다. 초연의 작품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데 목적을 둔 정치극, 선동극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후자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민중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항쟁 주체로서의 역할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극과 함께 영화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는 김태영 감독의 「칸트씨의 발표회」였다. 독립 영화인들의 모임인 '장산곶매'가 공동 작업한 1989년의 「오, 꿈의 나라!」는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전국 150개 상영 공간에서 500회 이상 상영하며 10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다룬 극영화의 첫 작품은 1990년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였으며, 최윤의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원작으로 한 장선우 감독의 「꽃잎」은 이른바 충무로의 제도권 영화계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정면으로 다룬 첫 작품이었다.[28]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기획시대'의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를 뮤지컬로 제작하여 (속칭 '뮤비클') 서울, 광주, 동경 등지에서 공연한 '메이 엔터테인먼트', 2017년 화제가 된 장훈 감독의 영화 「택시운전사」 등이 있다. 문화와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27) 이금희, 『5·18민중항쟁증언록 - 무등산 깃발』, 5.18민중항쟁청년동지회, 도서풀판 남풍, 1987. 127쪽.
28) 정명중, 앞의 글. 19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18민주화운동은 무겁지만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되어 민중들의 삶과 의식 속에 자리해 왔다.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에 침묵하지 않는 방법이 민중 문화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 예술 활동들이 사회 변혁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들의 활동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표 5. 5월 문학총서의 수록 목록[29)]

장르 구분	제 목	작 자	비 고
소설	봄날	임철우	『실천문학』 1984
	밤길	윤정모	창작과비평사 소설집 『슬픈 해후』 1985
	어둠꽃	한승원	월간 『예향』 1985
	십오방 이야기	정도상	광주항쟁소설집 『일어서는 땅』 1987
	깃발	홍희담	계간 『창작과 비평』 1988 봄호
	우투리 - 산자여 따르라	송기숙	계간 『창작과 비평』 1988 여름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최윤	계간 『문학과 사회』 1988 여름호
	불나방	백성우	월간 『예향』 1989
	다시 그 거리에 서면 2	박호재	광주항쟁 10주년기념 작품집 『부활의 도시』 1990.
	최루증	문순태	월간 『현대문학』 1993 봄호
	목마른 계절	공선옥	계간 『창작과 비평』 1993 여름호
	망월	심상대	계간 『창작과 비평』 1998 가을호
	그 희미한 시간 너머로	심영의	5·18기념재단 제1회 5·18문학상 당선작 2006

29) 5·18기념재단에서 총4권으로 편집하였으며, 총서의 고문 및 간행위원으로는 신경림, 송기숙, 백낙청, 염무웅, 현기영 등이 참여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는 임헌영, 윤정모, 나종영, 박인배. 책임편집위원으로는 강형철, 김형수, 이승철, 전용호 등이 참여했다. 간행위원장은 고은이 맡았다. 총서에 수록된 평론 부문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생산된 미발표 작품들이어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희곡(연극)	금희의 오월	박효선	극단 토박이
	햄릿 4	기국서	극대 현대극장
	모란꽃	박효선	극단 토박이
	봄날	임철우 작 / 김아라 연출	광주광역시 제작
	짬뽕	윤정환	극단 산
	푸르른 날에	정경진 작 / 고선웅 연출	남산예술센터 신시컴퍼니 공동 제작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	공동 창작 공동 연출	극단 신명
(노래극)	넋풀이 굿	황석영 외 공동창작 / 김종률 작곡 / 윤만식 연출	자유광주의 소리 제작
(시극)	어미와 참꽃	하종호 작 / 김호태, 황루시 공동연출	극단 마당
(판소리)	오월광주	임진택	
(영화)	부활의 노래	이정국 감독	새빛영화제작소
(뮤지컬)	화려한 휴가	김정숙 작 / 권호성 연출 / 미하엘 슈타우다허 작곡	메이엔터테인먼트, 5·18 뮤지컬추진위원회, 쇼엔라이프 공동제작
5월문학 총서 제1권에 수록된 시 목록은 본 논문의 뒤편 참고 문헌과 함께 붙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민중 개념의 등장과 민중문화운동

1. 창작의 소재, 창작의 주체

5·18민주화운동을 창작의 소재로 한 민중예술활동은 문학과 미술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미술 분야에서는 창작의 소재가 리얼리즘과 변혁 운동을 향한 치열한 논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장르들에 비해 가장 먼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민중미술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

「5월 미술 운동의 회고와 반성」에서 이태호는 1980년대 5월 미술의 주요 예술적 성과로 세 사람을 꼽는다. 회화의 강연균, 판화의 홍성담, 조각의 나상옥이다.[30] 강연균은 5·18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하늘과 땅 사이 1」에서 금남로에서 계엄군에 의해 처참히 학살당한 광주 시민을 담았다. 이 작품은 200호 크기의 대작으로 강연균의 첫 5월 그림이자, 미술사적으로도 처음 시도된 5월 그림이다. 이 그림은 5공화국 초기의 엄혹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8인 구상작가 200호 초대전'에 출품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후 그를 '광주의 게르니카'라고 칭송하였다고 한다.[31]

이태호는 같은 글에서 강연균의 회화에 대해 "그는 5월 체험 후의 좌절감을 극복하면서 현실 의식과 어우러진 회화 세계로 남도의 땅과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그는 전라도 땅을 그리면서 풍경화의 영역과 기법을 확장시켰다. 우리가 사는 땅의 아픔이라는 민족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점이 강연균의 개성적인 풍경화가 이룩한 민족적 사실주의의 핵심인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32]

---

30) 이태호, 「5월 미술 운동의 회고와 반성」, 『민주주의와 인권 2003년 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 23쪽.
31) 위의 글. 25쪽
32) 위의 글. 29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6. 강연균 / 하늘과 땅 사이 1

이태호가 꼽은 1980년대 5월의 미술 운동에서 '성과를 남긴 미술인' 중에서 홍성담은 단연 두드러진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목판화의 '5월 연작 시리즈'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민중 미술은 1979년 8월 홍성담과 최익균 등이 주도한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의 광주 화단은 오지호, 허백련, 허건 등의 대표적 화가들에 의한 보수적이고 전통적 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술인들의 현실 인식, 즉 체제와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는 견해와 작업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유미술인협의회'를 결성하고 1980년 5월로 예정하고 있었던 창립전을 그해 7월 남평의 드들강에서 야외 작품전으로 개최하였다. '5월 영령들의 진혼굿' 형태였다.[33] 이 작품전에서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는 제1선언문을 통해, "작가들은 발견자들이어야 한다. 이 땅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는 자들이어야 한다. 상황이 모순과 비리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집중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양심의 명령일 것이다. (중략)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작가 자신의 반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대의 모순을 유발케 하는 죄악에 우리는 힘차게 접근하여 이 시대가 명령하는 양심으로 인간의 존엄함에 기여할 것을 우리의 사랑법과 더불어 선언했다".[34]

'시대가 명령하는 양심'이란 광주의 참혹한 좌절은 곧 자신들의 좌절이었고, 이

33) 이태호, 위의 글, 30쪽
34)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제1선언문 - 미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1980. 7. 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그 현실을 예술로 포장한 미학적 본질의 뒤로 숨지 않겠다는 자신을 향한 준엄한 요구였다. 홍성담은 두 번째 야외 전시를 기획, 연출하는데 이 역시 씻김굿의 형태를 취했다. 여기서도 제2선언문을 발표했다. “우리가 지금 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이 담겨진 문화의 본질인 것이다. 생생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담긴 본질을 어떻게 추출하여 표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우리 민중 예술의 기본 개념이 되어 온 ‘제의’와 ‘놀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 이러한 ‘신명’이야말로 현대 예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이며, 집단적 신명은 잠재된 우리 시대의 문화 역량이기 때문이다.”[35]

제1선언문의 ‘시대가 명령하는 양심’이 자각이라면 제2선언문은 ‘집단적 신명을 위한 잠재된 문화 역량’을 발휘하여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천명하는 사회 변혁 운동의 선언이었다.

2. 전시관과 공연장에서 현장으로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이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군부독재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던 언론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행해지는 연희, 노래, 걸개그림, 만장, 구호 등은 모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당시의 상황을 담은 것들이었다. ‘오월의 노래 2’의 가사가 그렇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로 시작되는 이 노래야말로,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의 핵심을 확인해주고 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누구나 함께 불렀던 이 노래만큼이나 항쟁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 왔겠는가. 진실과 정보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민중들에게 노래와 연극과 마당극과 시와 소설과 판화는 진실을 알리는 수단이었고, 민중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5·18민주화운동에서 1987년 6월항쟁에 이르는 동안에 민중 문화 운동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다. 문화 예술은 관념적 미학이나 전시관의 조명에서 벗어나 민

35)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제2선언문 - 신명을 위하여」1981. 12. 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들의 삶과 함께 해야 했다. 광주의 죽음에 이은 또 다른 죽음들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했던 당사자들이 민중 문화 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을 떠나보내는 장례 의식은 준비 단계부터 민중 문화 운동 활동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에 그 비장함과 치열함이 민중의 이름을 붙인 문화와 예술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규태는 "직설이 아니면 타살의 시대"[36]라고 말했고, 「광주출정가」의 노랫말에 그 격정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민중 예술의 미학적 고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치열한 운동과 함께 채희완, 임진택, 정이담, 백원담, 박영정 등은 민중 문화 운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문예운동의 현단계와 전망』(한마당, 1991), 『문화 운동론』(공동체, 1985), 등의 단행본과 민중 문화 운동 단체의 기관지 및 여러 잡지에 많은 시론과 평론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채희완은 「마당굿의 과제와 전망」에서 "과거의 민중 연희를 이어받아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들을 민중의 역사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37]고 주장했다. 이 주장 안에는 당대의 민중 문화 활동가들은 물론, 민중 예술을 창작하는 모든 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것은 현대 예술의 매체와 미학의 '민중적 접수'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술이 갖는 본질적 요소인 미학으로 민중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정서적 동화와 자각,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예술성'의 문제였다. 전통 마당극이 갖는 풍자와 해학의 미학적 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현실적 모순을 어떻게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예술의 창작 행위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학을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문화의 창작에서 담론에 이르기까지 변혁 운동의 매개나 도구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미학적 가치를 창조하고 민중의 참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기 고민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문화의 변증법적 고찰과 함께 신식민지 시대 제3세계들의 사회적 현실을 타개하려는 『민중 문화 운동 실천론』[38]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36) 허연식, 「직설의 노래로 타살의 시대를 넘었던 그대」, 『광주인 칼럼』, 2013. 6. 7.
37) 채희완, 「마당굿의 과제와 전망」, 『문예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도서출판 한마당, 1991. 7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도서의 활자에서 현수막과 육성으로

1987년 7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낭송한 문익환 목사는 그동안 분신과 투신,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족, 민주 열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목 놓아 불렀다. 그 어느 조사보다 현장에 함께 있던 민중들을 압도하는 조사였고, 한 편의 서사시이기도 했다.

구태여 그들의 죽음에 대한 과정에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죽음 하나하나가 이한열이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었다. 문익환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는 시인이기도 했다.

그림 7. 이한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목사 문익환

성래운도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할 때마다 활자화된 시집으로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시들을 낭송했다. 교육학자인 성래운의 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 내용보다 시 낭송으로 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에 남았다.

문학이 꼭 활자를 통해서만 독자로서 민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만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은 이른바 연대시 낭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편의 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합창하듯이 낭송하는 것이다. 활자의 문학

38) 루카치 외, 김정환, 백원담 역, 『민중 문화 실천론』, 화다출판사, 198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구호와 연설처럼 육성으로 시위와 집회의 현장에서 문예 활동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문학이 활자화된 도서 밖으로 나오면서 노래와 결합하여 노래극이 되고, 마당극 등의 연희와 결합하여 집체극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민중문화 운동연합은 성래운의 시 낭송과 임진택의 판소리를 묶어 녹음테이프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학살로 국가권력을 강점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민중들을 탄압하기 위해 우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렸다.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시키고 진보 성향의 모든 간행물들을 폐간시켰다. 1970년대 지식인들의 시론과 평론을 도맡았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도 이때 폐간되었다. 전국의 모든 인쇄소에 대한 검열과 감시도 강화되면서 유인물의 대부분은 지하에서 등사로 제작되었고,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벽시를 붙이는 청년들도 있었다.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에 대학에서는 대자보가 정보와 시위 및 집회를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다. 대자보는 학내 문제를 비롯한 시국 관련 성명서와 사상 투쟁과 같은 내용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각 대학마다 총학생회실에서는 밤새워 시국과 투쟁 노선과 다음날 시위와 집회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의 결과를 일반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과 대자보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풍경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기억의 시각적 재생과 집단기억

1. 타살의 시대, 죽음을 껴안는 비극의 형상화

5월의 광주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 대장정으로 부활하기 시작한다. 1980년 5월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고, 분신과 투신의 극단적 저항으로 이어져 마침내 6월항쟁에 이르게 된다.

민주 열사들의 희생은 매년 5월에 집중되었다. 그들의 주검도 5·18희생자들이 묻힌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 고규태는 민중문화연구회의 한 모임에서 그 당시 상황을 "김지하의 풍자냐 자살이냐가 아니라 지금은 직설이 아니면 타살의 시대"[39]라고 이야기했다.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어버릴 것 같은 엄혹한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광주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신군부는 광주의 흔적을 지우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른바 3S정책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 대중문화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반면에 민중 문화 운동은 국민의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고 군사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수단이었다. 대중문화 조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과정에서 민주 열사의 죽음은 가장 비장한 자기 선택이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하였고, 이것을 은폐하려 했으나 결국 세상에 알려지면서 6월항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면서 1987년 6월항쟁은 정점에 이르렀다.

죽음이 투영된 민중 문화와 민중 예술은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반인륜적 만행을 폭로하는 선전장이었고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 변혁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공론의 장이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연세대 정문에서 이애주가 추었던 넋풀이 춤, 연세대에 걸린 대형 걸개그림, 연세대에서 서울역까지 끝없이 늘어섰던 만장과 깃발들, 장례식에 참석한 모두를 비장하게 만들었던 열변의 연설들은 하나같이 타살된 민중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타살한 국가 공권

39) 허연식, 앞의 글, 같은 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력에 대한 분노와 공격이 동시에 분출되는 애도이자 투쟁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의 계속이었고, 의례 투쟁은 이제 분신과 투신, 공권력에 의해 타살된 민중들의 죽음을 껴안는 장례 투쟁이 되었다. 노동 현장과 농촌 현장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 현장의 곳곳에서도 타살과 자살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1986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헌법이 바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민중들의 생존권 현장에서의 타살은 계속되었다.

타살과 자살의 비극적 현실의 맨 앞에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이 나서야 했다. 장례 투쟁의 모든 기획과 연출도, 주검을 두고 싸우는 비장함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으로 민중들의 현실 자각과 사회 변혁을 향한 투쟁 대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장례 투쟁에서 기획되고 연출된 민중 예술은 그대로 민중들의 삶의 현장과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재생되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은 대중성과 사회 변혁 운동의 영향력에 정점을 이루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6월항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장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림 8. '이한열 열사 장례식'과 대형 걸개그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판화와 노래를 통한 민중적 정서의 표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는 홍성담을 중심으로 1983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시민미술학교'를 시작했다. 민중 미술의 조직화이면서 동시에 민중을 미술 창작의 주체로 세우는 시도였다. 말 그대로 주제와 소재와 주체가 모두 민중 미술의 시작인 셈이었다. "시인만이 시를 쓰고, 화가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님"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시민미술학교는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비판적 미술 운동의 한계와 극복」, 「민중 미술의 방법적 모색」 등의 교재를 제작하여 민중 미술 운동에 대한 민중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스스로 민중 미술 운동의 방향과 진로를 모색하는 담론을 제기하였다.

1986년까지 총 6기를 배출한 시민미술학교의 운영은 판화 강습과 전시, 그리고 현장답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자유미술입협의회 회원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 시민미술학교의 판화 교실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학은 물론, 노동 현장이나 노동 교실 등에서도 판화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 명동성당의 '청년미술학교', 연세대학교의 '시민판화교실' 등이 많은 민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40]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판화 운동의 시작이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시민미술학교'였다. 홍성담과 함께 시민미술교실을 운영했던 미술인들은 문영태, 홍선웅, 최민화, 육봉환, 백은일, 송만규, 최열 등이었다.

홍성담은 5월 연작 판화를 제작하여 당시 왜곡되고 은폐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좌절 이후 3년여 기간을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심지어 민중 문화 운동의 과정을 살핀 학자들도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지만 적어도 이 기간에도 홍성담에게 패배주의는 보이지 않았다.

위의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창립 선언문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그의 이 기간 작품 활동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의 1980년대 초반의 작품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는 민화적 요소, 불교적 색채, 굿판의 형성 등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민중들의 참혹한 죽음을 사실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광주의 좌

40) 배종민, 「5월미술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10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씻김을 통한 해원, 해원을 통한 망자들의 원한과 살아남은 자들의 분노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학살의 원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치열함이었다. 이런 그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미술 작품 활동은 당시 황석영 소설가의 신문 연재소설 「장길산」의 삽화 작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황석영의 「장길산」은 소재와 이야기 전개 자체가 민중적이었다. 다시 말해 당대의 대표적 '민중 문학'이었던 것이다. 백기완의 '장산곶매 이야기'를 소설의 서막으로 시작하고 있는 「장길산」은 끝부분에서 다시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에 관한 전설을 차용한다. 구전으로 전해져 온 옛날이야기와 민중 신앙으로서 미륵 사상이 이 소설의 사상적 배경이었다.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 역시 '혈루'의 연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들이 자행한 학살 만행을 민화와 같은 직설적 표현으로 묘사했다. 그는 5월 연작 판화를 제작한지 30년이 지난 후 '홍성담의 오월 판화전'의 작품집에 「혈루 7」에 이렇게 적고 있다. "언젠가 웅덩이에 고인 물이었다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흐르다가 그 중간쯤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별과 또 다르게 빛을 뿜어내는 하늘 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았더니 비가 내린 후 오색 무지개를 타고 다시 땅에 내려와 작은 실개천에 흐르다가 강물에 뒤섞여 바다를 만났다."[41]

신군부 세력들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했던 광주 민중들의 모습을 그렸던 30년 전의 회상이면서 동시에 윤회하듯 마침내 광주 민중들이 그의 염원대로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하고야 말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읽힌다. 홍성담의 오월판화전 작품집의 서문에 해당하는 '초대의 글'에서 박석무 당시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전시되는 오월 연작 판화는 1980년 5월 광주를 구체적이고 사실적 형상으로 담아내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작품 속에는 진압의 잔인함부터 투지 넘치는 시민군의 모습, 광주 시민의 대동 정신까지 여러모로 5월 광주가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42]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대전의 '미룸갤러리'에서 가진 '홍성담의 5월 판화전'에서도 위 「혈루 7」에 대한 작가노트에 "그녀는 (…) 나에게 가슴을 열어보였다. 구름

41) 홍성담, 『홍성담 오월판화전 도록』, 5.18기념재단, 2006, 5. 3쪽.
42) 박석무, '초대의 글', 위의 도록. 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속에 구름과 별과 꽃과 무지개와 실개천과 강과 바다가 새겨져 있다고 나의 우둔한 귀에 푸른 입술로 속삭였다."고 적었다.[43] 그는 작가노트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죽음'을 우주의 모든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있다. 당시 제작된 판화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었다면 '광주학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재평가되기까지 세월이 흐른 지금 '광주의 죽음'은 그동안 변하지 않은 자연과 생명의 새로운 가치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홍성담의 의식적 기저를 이루고 있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 천부적 생명에 대한 민간사상(무속)의 영향이라 할 것인 바, 처음 목판화의 기법이 불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그가 소설가 황석영과 함께 연재소설 '장길산'에서 민간 신앙으로서의 무속과 민담을 판화로 시각화하였던 작업의 경험이 투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가 노트 등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확장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작품이 창작되었던 시점에서의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는 '광주의 진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리는 가장 사실적인 예술 도구임이 분명했다.

민중문화연구회의 한 분과로 출발했던 '시각매체연구소'[44]의 일원으로 참여한 작가들의 판화 작업도 그 소재가 대부분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천착하고, 민중들의 변혁 운동에 대한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판화가들의 노력에 대해 전남대 탈춤반 출신이고 5·18항쟁 현장에서 활동했던 당시 신문기자 김선출은 "판화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시도했고, 모순의 현실에서 신명어린 민중상을 찾고 당대의 투쟁에 미술을 도구로 삼은 사람들"[45]이라고 평가했다.

'시각매체연구소'에 소속된 이들의 판화 운동과 창작 활동은 아직 본격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지만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300여 년 동안 러시아 미술계의 한 특징을 이루는 '루복'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루복'은 이 시기 러시아의 판화이자 민속화를 일컫는 용어이다. '루복'은 그림과 문자와 구비 문화적 요소들이 혼합된 '복합장르'였다[46]는 점에서 1980년 5월 이

43) 한겨레신문, 「그해 오월 민주주의를 쓴 사람들」, 2018. 5. 8.
44) 홍성담, 백은일, 홍성민, 전정호, 이상호 등이 참여했다.
45) 김선출, 『5월의 문화 예술 - 기원에서 5.18기념사업까지』, 도서출판 샘물, 2001. 3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후 광주에서 활동했던 민중 미술 활동가, 특히 판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이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기법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루복'이 유행했던 시기 역시 러시아 사회의 격변기에 해당한다는 점과 기존의 심미적이고 숭고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던 미술, 문학과 달리 민중들의 삶과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던 일련의 문화적 현상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와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1980년대 민중 미술에 대한 좀 더 확장되고 깊이 있는 연구의 한 과제로 제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민중 미술 활동에서의 판화와 함께 전통적 민중 정서로서의 민속성과 사실성을 담아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노래패들의 활동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임진택, 채희환 등이 연희패에서, 김민기, 김영동 등이 대중가수 활동으로 민중의 삶과 애환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적 활동의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각 대학마다 노래패가 결성되었고, 광주에서는 전남대의 노래패 '횃소리', '친구'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대학에서의 노래패가 공개적인 활동을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여러 민중가요들이 창작되어 불리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노래 두 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 2'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하기 위해 만든 노래극 '넋풀이'의 삽입곡이었다. 노랫말은 백기완의 '묏비나리'의 일부를 원용해 황석영이 썼고, 작곡은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이 했으며, 넋풀이는 노래극으로 당시 황석영 소설가의 자택에서 극단 광대 소속의 윤만식, 전용호, 김선출, 임희숙, 임영희, 목사 김은경, mbc PD 오정묵 등이 참여했고, 전체 연출은 황석영이 맡았다.

46) 이형숙, 「루복의 예술체계」, 『러시아 연구』 제1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3. 45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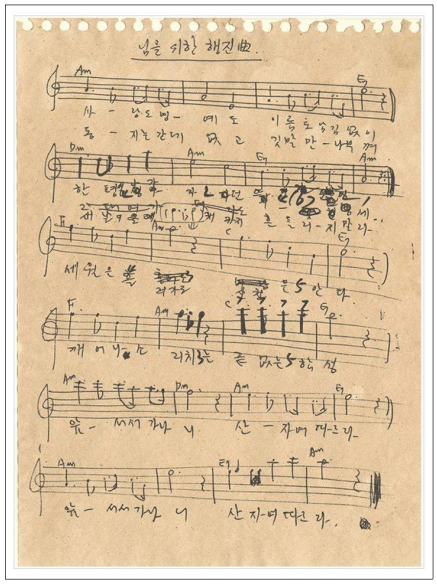


그림 9.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의 원본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현장이나 농성장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오월의 노래 2'이다. 작사, 작곡 모두 미상인 이 노래의 원곡은 프랑스 샹송가수 미셸 뽈나레프(Michel Polnareff)가 1970년 12월 31일 발표한 'Qui A Tué Grand-Maman?(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요?)'으로 알려져 있다.

노랫말의 직설적 표현 중에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손옥례 씨가 모티브이다. 실제 그녀의 사망 검시서[47]에는 사망 원인으로 국부의 총상과 가슴의 자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총상은 사입구[48]가 여성의 국부에 집중되어 있고, 대검에 의한

47)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사태 사망자 검시결과보고서」, 1980. 이 검시보고서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진압된 후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경찰서,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여 사망자들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며, 이 검시결과보고서에는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을 선행 사인과 부상 부위 전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손옥례 씨의 경우 사망자 검시보고서에 붙은 얼굴 사진과 검시 결과 내용의 참혹함이 대조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의 잔혹상을 알리는 사례가 되었다.

48) 사입구는 총격에 의해 총알이 들어간 부위를 말하며, 총알이 관통되어 나간 부위를 사출구라고 한다. 법의학 용어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방부 자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노랫말 한 소절 한 소절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예컨대 1절은 손옥례 씨와 같은 참혹한 학살 만행을, 2절에서는 '광주학살'의 이유를 물으면서 동시에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암매장과 시체의 유기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독려하고 있으며, 마지막 4절에서는 '광주학살'이 단순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정권욕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이 근원적 모순임을 확인하고 있다. 노랫말의 전개와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의 폭로와 투쟁의 독려를 함께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조 또한 행진곡풍으로 부르는 이들의 정서를 하나로 묶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대머리야 쪽바리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피!피!

-5월의 노래 2- 전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와 함께 김민기, 양희은의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를 개사한 '투사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전진가', '전진하는 새벽', '선봉에 서서' 등의 민중가요들이 1980년 초반에 만들어져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 혹은 동아리 활동 등에서 많이 불렀다. 이후 대학에서 노래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졸업한 후 노래패를 만들어 본격적인 민중가요 창작과 공연 등을 시작한 그룹이 '새벽'이었다. 노래패 '새벽'은 1984년에 결성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전국의 대학가와 문화 운동 진영에서 노래패들이 결성되어 이른바 '1980년대 민중가요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광주에서는 1985년 민중문화연구회의 창립을 계기로 노래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결성된 전남대 노래패 '친구'에 의해 많은 민중가요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용봉문학회와 노래패 친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래들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광주출정가', '벗이여 해방이 온다.', '전진하는 오월', '광주시민 장송곡' 등이다. 특히 고규태는 민중문화연구회 홍보부장을 맡으면서 많은 민중가요들을 작사했고, 작곡가로는 박문옥, 정세현, 김경주(판화가), 박종화 등이 있다.

이 작곡가들 중에서 민중성과 현장성에 가장 부합하는 민중가요를 작곡한 이가 정세현이다. 그는 전남 진도에서 진도 씻김굿의 무가(巫歌)를 비롯하여 진도 지방의 노동가인 들노래,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등의 소리를 익혔다. 진도의 민속음악이 바탕이 되어 민요풍의 '꽃아 꽃아', '새벽길', '꽃등 들어 님 오시면' 등의 민중가요를 작곡했다.

이 노래들은 특히 분신 정국이라 불리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민족, 민주열사들의 장례 투쟁[49]에서 많이 불리어졌으며, 장례 투쟁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비장함을 갖게 만들었다. 정세현이 작곡한 노래의 대부분은 민요풍의 서정성 짙은 것이 특징이며, 진도씻김굿의 무가와 같이 민중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노래 가사의 소재 또한 5·18민주화운동, 분신한 열사들,

49) 장례 투쟁은 분신과 투신, 혹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족, 민주 열사들의 유해를 지금의 옛 5·18묘지에 안장하기 전에 전남도청 앞에서 노제를 치르고자 하였고, 공권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전투경찰 병력을 투입하였다. 심지어 5·18구묘지로 향하는 장례 행렬 자체를 막기도 하였으며, 장례 행렬을 막는 전투경찰 병력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원하는 장소에서 노제를 치르거나 장지인 5.18구묘지로 가기 위해 벌인 시위의 과정이 장례 투쟁이었다. 이런 장례 투쟁은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서울 노제와 광주 전남도청 앞 노제, 그리고 5·18구묘지 안장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의 장례 투쟁이 대표적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동자와 농민들의 애환과 억압된 현실 등이었다.

특히 노래패 '친구'의 활동은 다른 장르들과의 결합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선전은 물론, 참가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투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공연으로도 연출되었다.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 맞는 단막의 노래극이 대표적이다. 노래극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에 놓고 시 낭송과 풍물굿, 합창과 독창, 집단율동 등을 섞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현장에서 정세현의 민중가요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민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광주출정가'와 같은 행진곡풍의 노래들이었고, 민속음악에 바탕을 두고 있어 풍물의 장단과도 쉽게 어울리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한편, 그의 노래는 또 '꽃아 꽃아', '꽃등 들어 님 오시면'과 같은 전통 가락과 서정성 짙은 노래들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민중들 앞에서 '공연'으로서도 손색없는 것들이었다.

그가 작곡하고 고규태 시인이 작사한 민중가요들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러졌다. 그 대표적인 곡이 '광주출정가'와 '혁명광주' 등이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음악 부문은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주로 불러진 민중가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그 외의 음악 장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영역에서 음악 장르의 활동이나 창작이 한국 사회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별도의 집중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미술 장르에서 회화와 조각 등의 여러 장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폭로하고, 나아가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사회 변혁 운동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본 '판화'를 중심으로 살핀 것처럼 음악 장르 또한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투쟁력을 앙양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민중가요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 것이다.

노동은은 "광주의 주검이 인간의 좌절과 회한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은 물론이거니와 광주의 비극이 분단의 비극이라는 민족 현실이 주어져 광주는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며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에 미친 5·18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러나 음악인들이 광주를 소재로 형상화한 전문적 작품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눈에 띌 정도로 많지 않다."[50]고 지적한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벌어진 사실과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민주화를 실현했어야 했다. 민주화 투쟁을 고양시키고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의 민중가요에 비해 다른 보다 전문적인 음악 장르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소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985년 5월부터 본격화된 전국 대학의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위와 집회 현장마다 노래패들이 선전, 선동을 담당했다. 이른바 '문선대', 즉 문화선전대였다.

50)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2003년 제3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 56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절 민중문화예술운동의 담론 형성

1. 5·18부터 6월항쟁까지의 민중문화운동론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하여 1987년 6월항쟁에 이르는 민주화를 향한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양하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은 "5·18민주화운동을 실패한 성공으로, 1987년 6월항쟁을 성공한 실패"였다고 역설적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80년대 민주 변혁 운동은 '광주'의 기억을 부활시키려는 세력과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세력 간의 역사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광주의 기억'은 운동이나 시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하나의 세대적 수치심과 책임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공감대는 해방 후 우리 사회에 최초로 형성된 공공 윤리, 집단적 도덕성이었다."고 분석하면서 "(광주항쟁에 참가한 민중들이) 오히려 민주화라는 이념을 의식하지 않았던 이들 기층 민중들의 투쟁이야말로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쳤으나 행동으로는 독재 권력에 굴복했던 지식인과 중간층의 노력에 비해서 민주화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5·18은 외형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6월항쟁은 "(직선제 개헌)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의 복원이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로 대체되었고, 기존의 군부 엘리트를 정점으로 하되 대자본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지배블록에 타격을 주지 못하였고, 이 지배 블록이 언론과 재벌로 대체됨으로써" 민중들의 정치 참여는 지극히 제한적 진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51]

김동춘의 이러한 분석과 견해 안에서도 1970년대 민족 문화 운동에서의 '민중'에 대한 막연함과 지식인들의 개별적 수준의 변혁 운동의 한계, 그에 반해 5·18민주화운동의 경험을 통해 의식화에 이른 단계는 아니더라도 광주 민중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대동 세상, 민주 세상을 향한 목숨 건 투쟁을 통해 확인된 '민중'

---

51) 김동춘, 「5.18, 6월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학술논문집, 5.18기념재단, 2007. 22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뿐만 아니라 6월항쟁에 이르는 세대론적 수치심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할 만큼 큰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6월항쟁은 김동춘이 분석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준 것은 분명하다. 민족, 민주 열사들의 많은 희생을 딛고 이르렀던 6월항쟁은 중간층의 참여를 통한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열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민중들의 정치의식 또한 보다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던 점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중 문화 운동의 대중화, 민중 예술의 대중성 확보의 필요성이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도 본 연구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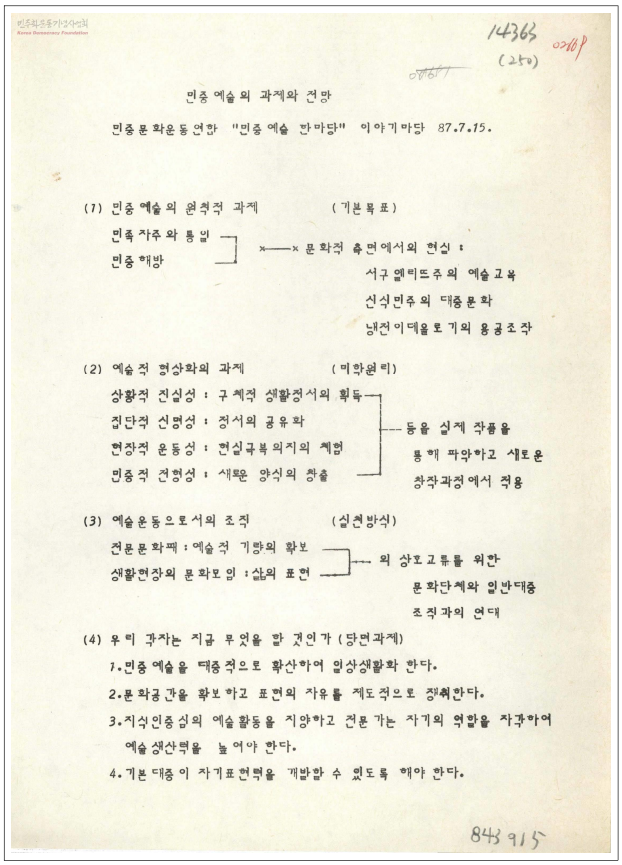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인들은 6월항쟁을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치열한 논쟁을 통해 민중 문화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준비했다. 민중문화 운동협의회에서 민중문화 운동연합으로 발전한 민중 문화 운동은 1987년 7월 「민중 예술 한마당, 이야기 마당」을 열고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과제와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민중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변혁 운동의 현장 열기를 더욱 고양시키고 연대감을 강화시켰으며, 집회와 시위의 목적과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은 분명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을 일정하게나마 성공시킨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합법적 시기에서 그와 같은 성과가 이전보다 훨씬 확장된 합법적 공간에서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것이었다. 앞서 김동춘의 견해를 통해 지적했듯이 이미 지배 블록이 재벌과 언론에 의해 대체된 상황에서 대중매체의 융단 폭격이나 다름없는 언론에 의한 대중문화의 일방적 공세와 여론몰이에 대응한다는 것부터가 민중 문화 운동 진영에 닥치는 발등의 불이었다. 비합법 시기의 민중들은 정보와 진실에 목말라 있었고, 그 갈증을 풀어주는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가졌지만 합법의 시기에는 민중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정보의 본질까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합법 시기의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어우러져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비합법의 시기에는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언론의 강력한 통제와 물리적 폭력으로 대항 담론의 형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거나 전파를 차단했던 시기였으므로 민중들을 향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활동은 담론적 수준에 이를 수 없었으며, 6월항쟁 이후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대항 담론으로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자기 정체성과 미래상을 그려야 할 시점이기도 했다.



민중 예술의 과제와 전망

민중문화운동연합 "민중 예술 한마당" 이야기마당 87.7.15.

(1) 민중 예술의 원칙적 과제 (기본목표)

민족자주와 통일
민중해방
×——× 문화적 측면에서의 현실 :
서구엘리뜨주의 예술교육
신식민주의 대중문화
냉전이데올로기의 용공조작

(2) 예술적 형상화의 과제 (미학원리)

상황적 진실성 : 구체적 생활정서의 획득
집단적 신명성 : 정서의 공유화
현장적 운동성 : 현실극복의지의 체험
민중적 전형성 : 새로운 양식의 창출
— 등을 실제 작품을 통해 파악하고 새로운 창작과정에서 적용

(3) 예술운동으로서의 조직 (실천방식)

전문문화패 : 예술적 기량의 확보
생활현장의 문화모임 : 삶의 표현
— 의 상호교류를 위한 문화단체와 일반대중 조직과의 연대

(4) 우리 동지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과제)

1. 민중 예술을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일상생활화 한다.
2.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쟁취한다.
3. 지식인중심의 예술활동을 지양하고 전문가는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여 예술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4. 기본대중이 자기표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0. 민중문화 운동연합의
'민중 예술의 전망과 과제 토론'을 위한 테이블페이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민중문화 운동연합의 이 토론은 변화된 환경과 조건, 여전히 요구되는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역할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을 내오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중 예술의 기본 목표, 미학 원리, 실천 방식, 당면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① 민중 예술의 원천적 과제로써 민족자주와 통일, 민중해방. ② 예술적 형상화의 과제로써 상황적 진실성, 집단적 신명성, 현장적 운동성, 민중적 전형성. ③ 예술 운동으로서의 조직을 위해 전문 문화패의 예술적 기량의 확보, 생활 현장의 문화 모임을 통한 삶의 표현. ④ 지금 해야 할 일로써 민중 예술을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일상 생활화하고, 문화 공간 확보와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쟁취하며, 지식인 중심의 예술 활동을 지양하고 전문가는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여 예술 생산력을 높이고, 기본 대중이 자기 표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52]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 목표와 관련하여 서구 엘리트주의 예술 교육의 현실과 신식민주의 대중문화와 냉전이데올로기의 용공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민중 예술의 민중 문화 운동의 전략과 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확인된다.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인 생활 정서를 획득하고 집단의 신명을 통해 정서를 공유하며, 민중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여 문화 단체와 일반 대중 조직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기, 즉 6월항쟁 이전까지의 민중 문화 운동이 지향했던 '현장성'이 '민중들의 생활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에 대한 담론은 민중문화 운동연합을 통해 각 부문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다양한 매체와 부문들의 소그룹들이 다양한 실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 현장에서 농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주민 생활 현장에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민중 예술의 부문별 소그룹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민중 문화 예술 활동의 대중성 획득이라는 과제를 향해 1988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으로 이어져 민중 문화 와 민중 예술의 각 부문과 소그룹들을 담아내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토론회의 당면 과제와 기본 과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신식

52) 민중문화 운동연합, 「민중 예술 한마당, 이야기 마당」, 1987. 7. 15. 13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민주의 대중문화와 냉전이데올로기의 용공 조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이미 국내외 정세 변화를 제대로 담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쇠락의 원인으로 분석하여 그 대안 모색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중문화 운동협의회와 민중문화운동론

1985년 4월 13일 창립 1주년을 앞두고 민중문화 운동협의회는 「85 문화선언」을 발표했다. “참 민중 해방과 참 민족 통일을 향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운동의 깃발을 드높이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밝힌다.

첫째,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으로서 문화 운동 집단의 독자적인 기량을 통하여 대중적 차원의 일상적 정치 선전 및 교육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둘째, 군사 독재가 자행하는 대중조작, 정치선전, 체제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파행적 교육구조, 신식민주의적 문화침탈 등 일체의 반민중적 문화 정책을 분석, 비판하여 저들의 본질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냉전 체제의 장기화 및 그로 인한 갖가지 구조적 폭압 속에서 마멸되어진 민중의 건강한 생명 의지의 회복과 그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체의 이념 및 사상을 구축한다.

넷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유기적 통합 관계 속에서 추구함으로써 참 민중 해방과 참 민족 통일을 향한 새로운 차원의 민중 문화 운동의 이념을 확산시켜 나간다.”[53]

앞서 1985년이 갖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에서의 분기점으로서 의미에 관해서는 언급했다. 민중 문화 운동 또한 이 분기점에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이 어떤 역할과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위 네 가지 과제를 압축하면 ‘민중해방’과 ‘민족통일’이다.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일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는 일과 민중

53)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85문화선언 - 참 민중 해방과 참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운동을 향한 대열을 가다듬자」, 1985. 4. 2쪽.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57677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억압의 제 모순의 귀결점이 민족 분단에 있으며, 이 또한 외세의 끊임없는 침탈의 과정으로 보고 민족 통일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원천적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 민주, 민중의 삼민주의에 기초한 NL과 PD의 치열한 사상, 노선 투쟁이 진행 중이던 시점과도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 선전과 교육 활동을 위해 문화 운동의 독자적 기량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변혁 운동,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중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과 집회와 시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중 문화 운동의 기량과 역량을 제고하자는 방법론까지 나아갔다. 이즈음에 채희환, 임진택, 백원담 등의 문화 운동 이론가들은 제3세계 민중 연대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황석영은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창립대회 발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제3세계 민중과 문화일꾼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우의를 더하면서, 우리 (민중 문화) 운동체의 객관성을 드러내는 일은 지금 운동 단계에서 필연적 소산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54]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창립은 먼저 광주 지역의 문화 운동 활동가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2월 아직은 개별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일을 꾸미고 있던 광주 지역 문화 운동 활동가들이 서울의 문화 운동 활동가들에게 문화 운동에 관한 심포지엄을 제안했다. 3~4일 동안 민중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통일된 견해를 밝히는 모임을 갖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을 받은 서울 지역 민중 문화 운동이나 민중 예술 활동으로 포괄할 수 있는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일회성 대회로 하기는 미진하므로 “70년대 이래로 문화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나 질이 상당히 늘어나고 향상된 것이 사실인 만큼 각 부문이 연대하여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가칭 문화 운동협의회창립준비위원회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다.[55]

---

54) 황석영, 「문화 운동의 반성과 전망」,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창립총회 보고서』,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1984. 4. 30. 3쪽.
55) 위의 자료, 「창립총회 경과보고」. 4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절 6월항쟁 민주대장정과 민중문화예술 활동

1. 시위현장의 판과 굿

1970년대에 탈춤반이 민족 문화 운동의 조직화와 대중화에 기여했다면 1980년대 중 후반부터는 풍물이 그 역할을 이어갔다. 탈춤이나 마당극이 지정된 공간의 마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형식이라면 풍물은 '굿'으로, '길놀이'로, 동적이라는 점에서 집회와 시위의 상황에 맞는 형식이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시위와 집회의 상황이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도 작용하였다. 그 이전의 시위는 백골단을 앞세운 전투경찰의 공격적 진압에 맞선 게릴라식 시위였던 데 비해 6월항쟁 이후에는 확보된 공간에서 집회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진의 대열을 이끄는 것은 풍물패가 담당했다. 풍물은 사물놀이가 되어 집회현장의 무대공연으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열의 선두를 이끄는 길놀이, 집회 참가자들의 전체를 아우르는 풍물굿판으로 그 변형이 용이하였다. 또한 집회와 시위를 알리는 역할로도 적합했다.

풍물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은 1980년대의 시위 현장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 농경사회의 집단노동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전통문화의 하나였다. 농경 사회에서 집단 노동의 가장 큰 힘은 '신명'이었다. 신명을 돋우는 것이야말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신명을 돋우는데 풍물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하늘의 일기와 땅의 돋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시농경사회는 당연히 하늘과 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의'가 행해졌고, '제의'는 곧 공동체 구성원들의 '놀이'로 이어졌다. 선조들의 24절기는 이와 같은 '제의'와 '놀이'를 하늘의 일기의 변화에 맞게 배치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신명을 돋우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예컨대 정월대보름은 불놀이로 논두렁 밭두렁을 태워 병충해를 예방하는 일이며, 단오절은 일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모내기를 끝낸 후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나누고 풀어서 본격적인 여름 농사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풍물은 '제의'를 알리거나 여는 역할을 하였고, 제의 후에 한바탕 벌어지는 '대동놀이'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의 신명을 돋우고 마음을 다잡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판굿을 만들었다. 집단노동의 대열을 이끌고 노동현장으로 향하는 '길놀이'의 선두꾼이었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과 역할을 풍물이 담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으로서 민족성을 가진 풍물이 폭압에 짓눌리고, 진실에 목마른 민중들에게 '새로운 집단 신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7년 7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후 연세대 정문에서 이애주가 춘 넋풀이 춤은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장의 굿이었다. 그 후로도 이애주는 집회와 시위 현장 곳곳에서 그 현장에 맞는 살풀이춤판을 벌였다. 살풀이춤은 진도의 씻김굿에서 유래된 춤이다. 망자의 넋을 달래고 이승에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풀어내는 씻김굿에서 춤사위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의 백미가 지전춤이며, 밤새워 진행되는 굿에서 무당은 사설 중간 중간에 춤사위를 섞는다. 여기에서 시나위 장단에 맞춰 무당이 자연스럽게 추는 춤사위가 전문 춤꾼들에게 의해 기방으로, 무대로 옮겨져 오늘날의 살품이춤으로 자리매김한다. 살품이 춤은 동적이면서 정적이고 서정적이면서 서사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민족민주열사들과 5·18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의 현장에서는 항상 살풀이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살풀이춤이 개인적이거나 전통 시나위 반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례의 양식이었다면 깃발춤이나 집단율동과 같은 춤은 시위와 집회의 역동성을 고양시키는 또 하나의 장르였다. 깃발춤 역시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 깃발춤은 인류 역사가 전쟁터에서 아군의 진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던 것이며, 출정에서 결의를 돋우고 승전에서 기쁨을 배가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1980년대 대학가의 대동놀이에서는 빠지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하다. 대동놀이 역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농경사회의 집단놀음에서 연유한다. 대동놀이의 시작이 풍물굿이었고, 풍물이 끝나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며, 마지막이 군무였는데 다 함께 어우러져 추는 단체춤이다. 이 역시 깃발춤과 같이 전쟁터의 진을 형성하는 모양새에서 유래되었다.

이렇듯 춤은 개인의 문화적, 예술적 기량을 통해 집회와 시위 현장에 참여한 민중들의 정서를 일체화시키는 한편, 군무와 조별로 나뉘어 추는 단체 춤을 통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현장의 신명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 1980년대 6월 민주대항쟁을 정점으로 한 민주화를 향한 사회 변혁 운동 과정에서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은 그 자체를 판으로 여겼고, 판에서 굿을 만들어 집단신명을 끌어올려 사회 변혁을 위한 민중들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광주에서는 1985년부터 시작된 민중문화연구회가 주최한 '광주문화큰잔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제1회 대회는 민중문화연구회가 창립되고 이듬해 4월에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시낭송과 주제 강연, 마당놀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회 대회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장르와 장르의 결합과 마당극을 중심으로 한 굿판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은 공안당국의 탄압과 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기획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5·18민주화운동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했던 문화 운동 활동가들과 문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 문화 운동 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풍물패와 전남대학교 '용봉문학회'와 당시 지역문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글과 현장', '놀이패 신명' 등의 단체들이 역량을 민중문화연구회 중심으로 모았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당시 홍성담 초대운영위원장에 이어 제3회 대회부터 대회운영위원장을 맡아 행사 전체 진행과 기획을 총괄했다. 민중문화연구회는 다시 광주민중 문화 운동협의회로 재편되었고, 광주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현장 연출, 5·18추모행사를 비롯한 의례투쟁, 6월항쟁 과정의 시위와 홍보물 제작 등을 전담하면서 1987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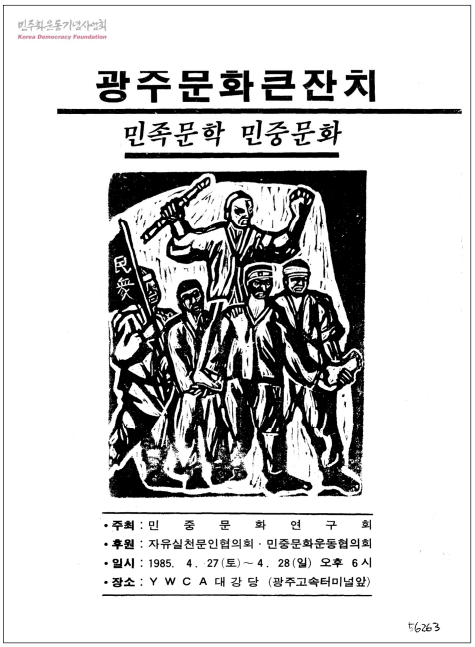
18년 동안 지속되어 온 유신독재 체제에 이어 전두환 중심의 군부가 신 국가권력을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판을 만드는 일이었다. 판을 만들어야 굿을 펼칠 수 있었고, 굿을 펼쳐야 민중들의 변혁 의지를 북돋아낼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은 주로 대학 내에서 판이 만들어졌고, 1985년이 지나면서 아직은 합법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집회와 시위의 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이 판의 굿을 짜고 벌이는 것은 지역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이 담당했다.

광주에서의 6월항쟁 기간 동안 시내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작 배포되었던 투사회보가 제작되어 시민들에게 시시각각 신문의 호외처럼 배포되어 항쟁의 전개 상황과 집회의 주요 위치와 시간 등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를 광주민중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 운동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인쇄를 하고 밤새 시내에 뿌렸다.

1985년부터 1987년 6월항쟁의 기간까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에게는 치열한 노선과 사상투쟁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가장 치열하고 바쁜 시간들이기도 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시위와 전국의 노동현장과 농촌현장의 생존권 투쟁에서 판을 벌여야 했고, 굿을 짜야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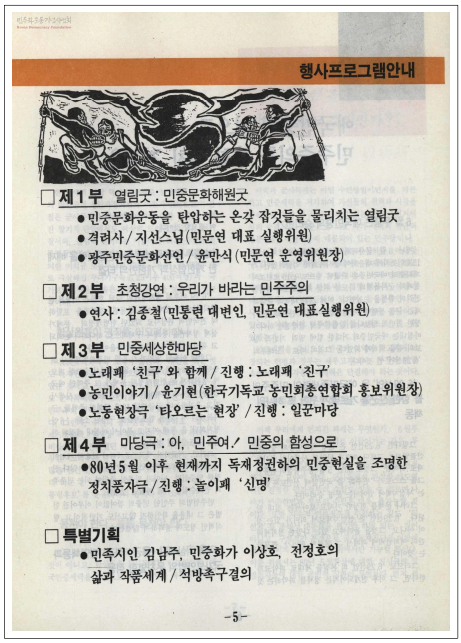


그림 11. 민중문화연구회가 주최한 '제1회 광주문화큰잔치' 리플렛과 '제3회 광주문화큰잔치' 프로그램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7절 민중문화예술의 제도적 편입 과정

1. 광주비엔날레와 안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는 1994년 설립준비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995년 9월에 첫 번째 비엔날레가 열렸다.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다.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 전시 행사'를 전문 인력보다는 행정 인력들이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었고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역사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시 주제를 비롯한 모든 기획이 진행되었다. 광주미술인공동체(이하 광미공)는 광주비엔날레 참여를 거부하고 별도의 비엔날레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광미공은 전국의 민주 인사들을 참여시켜 '통일미술제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망월동 5·18묘역을 주 전시 공간으로 결정했다. 전병근(통일미술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사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전국의 뜻 있는 민족 문화 예술인들이 광주비엔날레의 파행성을 고발하고, 민족미술의 진로를 역동적으로 개척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56]고 대답했다.

80년대 현실주의 민족 민중 미술 운동의 연장선에서 진정한 오월 정신 계승과 '안티-비엔날레'를 천명한 '95광주통일미술제-'역사는 산을 넘어 강물로 흐르고'가 광주비엔날레 기간인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오월묘역 일대에서 펼쳐졌다. 김윤수, 강연균, 김지하, 명노근, 정수만, 조홍규 등 미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오월단체·문화 예술계·학계·종교계·정계를 망라한 전국 103인의 추진위원회 주최로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회장 이준석)가 주관을 맡아 발의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광주비엔날레의 모순에 대응하여 행사를 개막하였다.

이들은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엔날레가 중단 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면 건강한 내용을 갖는 미술제를 열어 당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예향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광주 정신의 승화와 통일에의 의지를 담은 시각적 대항 논리를 세워야 한다."(95년 6월 28일 추진위원회의 서신형태 발송문)며 각계와 시민들의 동참 후원을 호소하였다.[57]

---

56) 충북대학교 신문. 1995. 10. 2.
57)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오월정신 계승과 통일 의지의 결집, 광주통일미술제」, 『남도미술의 역사』, http://www.gwangjuart.com/index.php?code=0205&lcode=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대작(하늘과 땅 사이)으로 형상화한 강연균을 중심으로 기획한 장승과 솟대, 그리고 당시에 산화한 영령을 위로하는 1천 2백여 장의 만장이 망월동 묘역에 이르는 길 양옆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전국의 민족미술인들의 개인 작품과 공동의 걸개그림, 판화와 조각들로 본 전시장인 망월동 5·18묘역을 가득 채웠다. 전시 기간 동안 연인원 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안티비엔날레로서의 통일미술제는 2회부터 안티라는 표현 대신에 프레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고, 3회부터는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에 흡수되었다.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순간부터 통일미술제의 기획 의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광미공은 내부의 이견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결국 해체되었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민중 문화 예술인들이 제도권에 참여하는 문제와 작가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변혁 운동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향과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고 작가가 추구하는 미학적 가치와 작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변혁 활동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면 자본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운동성과 작가의 가치가 바뀌더라도 종속성에 의한 것이라면 자기 부정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수반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제도권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갈등의 원인과 구조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자본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구조에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다.

민중 문화 예술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그 성과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민중 문화 예술인 역시 부단한 자기개발과 성찰로 민중들의 삶을 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2. 안티비엔날레로 열린 '통일미술제'에서 5·18구묘역에 설치한 만장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민중문화예술의 공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정치적 산물이다.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조성위원의 한 사람인 왕치선은 2016년 9월 개최된 대문예인 5차 세미나에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다. "본질적으로 문화계의 성장과 문화 향유자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전제되지 못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점은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까지 콘텐츠 확보와 관객 유치는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정보 교류와 문화 확산의 시대에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그 목적과 방향에 많은 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를 한국이 발굴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아시아의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의도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58] 조성 사업 자체가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성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58) 왕치선, 「대문예인 5차 세미나 발제문」, 2016. 9. 26, https://www.youtube.com/watch?v=KSBpChVun9M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당)의 건립 및 운영은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개원해서 운영에 들어갔지만 전당은 그 위치 선정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옛 전남도청 일원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장 상징적 공간이며, 그 주변이 대부분 5·18사적지에 해당된다. 비록 사업의 출발이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광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도시라는 점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굳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에 전당을 건립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부지가 결정된 후에도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확정된 설계를 두고 1년 이상의 공전을 거듭했다 이것이 랜드마크 논쟁이다. 설계자 우규승은 옛 전남도청 건물이 5·18사적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당의 모든 설계를 지하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전당을 지상에 세워서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1년여를 끌다가 결국 원래의 설계대로 건립하는데 합의했지만 다시 옛 전남도청의 별관 문제가 제기된다. 그곳도 5·18사적지인데 그곳을 허물어 전당의 출입구를 내야 한다는 설계 내용을 뒤늦게 확인한 5·18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 또 1년 넘는 시간이 허비되었다.

결국 5월의 문이라는 절충안을 만들어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화부 장관과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당은 개관되었지만 전당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증언하고 안내해야 할 옛 전남도청 일원에 대한 전시와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 5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의 조정과 불협화음의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 문화 예술인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중 문화 운동 주체들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앞세우고, '광주학살'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온 민중 문화 예술인들의 침묵은 아무래도 이해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광주비엔날레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시 민중 문화 예술인들에게 설 자리가 없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민중 문화 예술인들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8절 민중문화예술이 사회변혁에 미친 영향

1. 예술 형식에서의 장르 결합

1980년대 들어 민중 문화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연극, 탈춤, 노래, 풍물, 미술, 영상, 무용 등 장르적 울타리를 과감하게 변형 또는 파괴시키고 장르와 장르간의 상호침투를 시도함으로써 매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된다.[59] 가장 먼저 시도된 장르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은 판화와 시의 결합이었다.

홍성담의 오월 연작 판화와 김준태의 시를 함께 편집한 『오월에서 통일로』[60]를 비롯해 김경주, 조진호 등이 오월시 동인과 함께 펴낸 오월시 동인지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61]와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어라』[62] 등의 작업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미술 작업을 계속했다. 문학이 기본적으로 시대의 증언이자 기록이라는 점에서 시인들의 '광주 이야기'는 진실을 증언하거나 '광주의 참혹한 희생'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었고, 이러한 시인들의 '광주이야기'는 1970년대와 같이 시집으로 민중들과 만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인들의 '광주이야기'는 판화와 만나 새로운 소규모 출판 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장르인 노래와 결합되면서 현장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미 임진택이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판소리로 엮어 공연을 해 오고 있었으나 임진택의 판소리가 마당굿의 형태로서 동적이기보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1985년을 전후한 노래와 오월시의 결합은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기록과 증언에 가까운 직설적 내용들이 많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와 노동현장 등에서 유

59) 문호연, 「문화 운동 시론Ⅰ」, 『문화 운동론』, 도서출판공동체, 1985. 13쪽.
60) 시, 김준태, 판화 홍성담, 『오월에서 통일로』, 빛고을출판사, 1989. 5.
61) 오월시 동인지 제4집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도서출판 청사, 1984
62) 시 오월시동인 박주관 외, 판화 김경주, 조진호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어라』 도서출판 한마당, 198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하던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는 시인들의 ‘1980년 5월 광주의 증언과 고백’을 다른 노래의 가사로 바꿔 불렀다. ‘늙은 군인의 노래’가 ‘투사의 노래’가 되어 집회와 시위 현장의 대표적인 가두시위의 출정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래와 판화가 문학과 결합하였고, 풍물과 민요가 시위 현장의 구호와 어우러졌으며, 연극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 그리고 걸개그림과 판화를 프린팅한 만장, 깃발이 어우러져 ‘집체극’이 창출되었다.

그림 13. 김경주, 조진호 등이 오월시 동인들과 함께 한 작품집과 조진호의 판화가 표지로 사용된 시집들[63]

명칭은 집체극이었지만 북한에서 공연되는 집체극과는 그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달랐다. 북한의 집체극은 주로 대형 운동장에서 카드 섹션과 집단 율동으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체극은 여러 장르가 결합하여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민중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주제가 있는 집단 공연의 형식이었다. 노래극과 마당극과 시극, 그리고 시각적 요소들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이었으며, 장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형식이 모두 다르게 공연되었다.

대표적 작품의 하나가 1994년 결성된 노래패 ‘새벽’이 창단 후 처음 기획해 전주의 전동성당에서 공연한 「또 다시 들을 빼앗겨」이다. 이후 전국의 대학 노래패와 노동자 단체, EYC 등의 종교 문화 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식의 노래극과

63) https://www.neolook.com/archives/20180905c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집체극이 창작되고 공연되었다.

이러한 장르와 형식을 파괴한 결합은 기존의 예술이 전시장, 공연장과 무대, 도서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것과 달리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에 의한 변형이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공연이나 출판물의 검열이 강화되었던 당시 공안 통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식으로 공연을 하거나 음반을 제작하거나 출판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민중 예술의 주제와 소재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정치,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검열을 통과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연과 출판의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 역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광주학살로 들어선 정권의 도덕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한편,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곧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다양한 형식의 문예 활동 중에서 특히 판화는 오윤, 이철수 등에 의해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민속의 다양한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판화는 국가 권력을 강점한 5공 정권에 의해 강제 폐간된 문예지와 계간지를 대신해 시작된 『실천문학』같은 무크지와 여러 문학 동인들의 동인 시집, 민주화운동 단체와 진보적 성향의 종교 단체들의 소식지와 기관지 등의 표지와 삽화로 민중들과 만났다. 1979년에 창립된 '현실과 발언'의 창립회원이었던 오윤과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의 창립회원이었던 홍성담의 판화 작업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오윤이 김지하 시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 홍성담 역시 황석영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소설가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들 모두 1980년 5월의 광주를 판화 작업의 주제로 삼았으며, 미술을 민중 예술 운동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민중 예술 분야에서 미술인들의 남다른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부문에 비해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예술부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정형화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부문이 미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의 작품 시장은 전시장(전시기획), 소비자, 평론가, 언론 매체가 강력한 카르텔(Carte)을 형성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구조 안에 편입되지 않으면 미술 시장 자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미술계에서 기존의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치, 사회적 현실을 주제로 한 민중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당대의 지식인으로서도 예술인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두 사람은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민중 예술의 장르 중에서 판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이 집회와 시위의 현장을 중요시 여겼고, 그 현장에서 문화 선전대로서 선전과 선동을 자임하였는데 이 때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판화였다. 당시에는 인쇄나 인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복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색이 많아서 깃발로 제작하는데도 용이한 것이 판화였다. 판화가들 역시 이러한 현장의 쓰임새를 감안하여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판화는 당시의 민중 문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무크(Mook)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단색으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선적 기법과 직설적 내용, 민담과 설화와 같은 이야기의 서사성과 민속성 등을 담아내고 있어서 민중들의 정서에도 잘 부합되었다.

또한 군부 정권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던 상황에서 1980년 3월에 창간한 무크지 『실천문학』은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 시대의 문학 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창간호'라는 표제어를 붙여 출간했다. 1987년 이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의 계간지들이 다시 창간되기 이전까지 민중 문화 와 민중 예술, 비평과 담론, 사회적 의제들이 무크지에 담겨져 다양한 형식으로 출간되었다. 다시 말해 민중 문학은 무크지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지식인들의 고뇌를 담아냈다. 무크지를 통한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는 사회 변혁 운동의 질적 심화와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3세계 변혁 운동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변혁 운동 과정에서 민중 문화 와 민중 예술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1980년대 민중 문화 운동의 지평을 확장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혁 운동을 위한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천문학』이 시작한 무크지는 민중 예술의 활동가 소그룹들이 다양하고 다방면의 출판 운동으로 이어졌다. 문학의 '오월시' 동인과 미술의 '현장과 발언' 동인들이 출판한 동인 시집과 간행물은 물론, 1984년부터 공개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결성되는데 이 단체들의 기관지들이나 소식지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민중문화예술 활동과 사회 변혁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창작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6월항쟁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는 구분되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에게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의 창작은 첫째, 민중들에게 자기에게 직면해 있는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 둘째, 그런 민중들의 현실을 강제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셋째, 자각과 진실의 확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우선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문학은 격문과 성명서 그 이상이어야 했고, 미술은 광주학살의 진실과 학살을 넘어 절대 공동체를 이루었던 광주 시민들의 서사, 민족의 분단과 그로 인한 사회구조적 모순의 실체를 선명하면서도 선동적으로, 때로는 가장 민중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걸개그림과 만장과 깃발과 현수막과 벽화 등으로 표현했으며, 노래는 시위와 집회 현장에 있는 민중들의 연대감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살이 타살을 부르고 타살이 자살을 부르는 시대적 상황의 비장함과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민중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선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광주 출정가'[64]로 만들어지고 불려졌다. 마당극은 풍자와 해학이 가진 골계미보다는 연극이 갖는 비장미에 더 가까워지기도 했으며, 반대로 연극은 비장미보다는 민중들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자각할 수 있게 하려는 골계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과 연극 「짬뽕」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장르의 민중 예술이 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장르와 장르가 결합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중 예술의 지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민중의 자각', '모순의 실체와 진실', '변혁 운동의 참여와 나아감'을 독려하려는 민중 문화 활동과 민중 예술의 창작은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탈근대적 시기이기도 하지만 민주화의 이행기이기도 하다. 공교육과 국가의 통치 질서에서 식민사관이 유지되고,

64) 이 두 곡의 노래는 부르는 창자(唱者)의 창법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전통 판소리에서 '계면조'가 갖는 비장미를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하는 '자진모리'의 행진곡이 되기도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식민주의적 독점자본에 의해 국가경제 대부분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1970년대는 그 모든 모순의 집약점이 민족의 분단에 있으며, 그 모순에 의해 민중들은 압제와 수탈로 고통 받고 있다고 봤다. 국민교육헌장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 체제의 통치 이념은 민족 분단의 고착을 통한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으로 활용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유신독재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편,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를 통해 농촌과 노동 현장의 희생을 강요하여 그 잉여를 재벌이 독점할 수 있게 했다. 1970년대 지식인들에게 한국 사회는 전근대적 통치 질서의 독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보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들이 당대에 해야 할 양심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유신독재는 권력 내부로부터 일어난 분열로 쉽게 붕괴되고 말았다. 그것은 10·26 박정희 시해사건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권력 분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이었다. 유신독재는 부마 지역에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여 초기에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항쟁 발생 이틀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지만 그 불씨는 권력 내부의 분열로 번졌으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당시 경호실장)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면서 18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독재 권력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미처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던 민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고,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5월까지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중심의 하나회 출신 신군부 세력들이 군권을 장악하고 다단계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다시 강점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아직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학총학생회 간부 출신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서울역 회군'의 결정이었다.

결국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당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다시 장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권 장악의 명분으로 북한의 남침 위기설과 사회 혼란에 의한 국가 경제의 위기설을 조장하기 위해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65] 야당 지도자들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김동춘의 분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성공한 실패'였음을 확인하였듯이 신군부의 광주학살은 그들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국민 학살의 원죄'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신군부 세력들이 원했던 방향으로만 광주는 죽지 않았다.

광주에서 열흘 동안 비극적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 지식인들과 양심 세력들에게 1980년 5월의 광주는 '부채 의식'을 갖게 하였고, 그 부채 의식은 광주학살의 진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 중간 계층의 집단 윤리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광주학살의 진상 규명과 그 책임자들의 처벌을 통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민주 세력 모두에서 국민 일반의 의식으로 확장되어 갔고, 그 과정이 모아져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 사회학적 분석과 평가는 대체로 일치된다.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집단에 의해 자행된 국가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였다. 광주학살은 그 과정에서 사회 혼란과 북한의 남침 위협 등의 군의 정치 개입을 넘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분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법원은 이들 책임자들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법적으로 단죄했다. 동시에 광주시민들의 항쟁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국가 권력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였고, 이 과정에서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는 시민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다.

이런 5·18민주화운동이 1980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 즉 진보적 문예 활동가들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역할은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아래의 표에 그 과정과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보적 문예 활동이 한국 사회의 변혁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광주의 참담한 죽음과 희생[66]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지식인들과

65)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진압의 사전계획설에 관한 검토」,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타임라인과 관련한 선행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국방부, 2019. 7. 155쪽.

66) 본 연구에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음'과 '희생'의 개념을 구분했다. 죽음은 초기의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이다. 희생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도청으로 진격하던 무수한 시민들과 특히 5월 27일 새벽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계엄군의 총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 끝까지 저항하다가 장엄하게 최후를 맞은, 자신들이 선택한 희생이다.(위 허연식과 필자와의 대화 - 녹취록 1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진보적 문화 예술인들의 죄의식이었다. 광주의 참혹한 죽음을 알게 된 지식인들과 진보적 문화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광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고, 그것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시인과 소설가에게는 문학 작품으로, 미술인들에게는 광주를 소재로 한 회화와 조각과 판화로, 음악인들에게는 노래로, 연희패에게는 마당극과 풍물굿으로, 지식들에게는 이런 작품들에 비평과 시론으로 광주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광주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둘째, 이런 개인적인 진보적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이 일정 시기를 거치면서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 장르별 소모임부터 민중문화 운동협의회와 같은 협의체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되면서 '5월 광주'에 대한 토론이 가능해졌고, 민중 문화 운동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셋째, 앞의 두 과정을 거치면서 '민중'의 실체적 본질과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더 이상 민중은 피지배 계층의 무능한 집단이 아니었다. 5월의 광주에서 보여 준 민중들의 저항 정신과 공동체 의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지식인들과 진보적 문화 예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어떤 세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들 스스로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들과 문화 예술인들의 자성적 '민중'의 개념 수정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내내 유지되었다.

넷째, 민중 문화 와 민중 예술의 현장성 강화였다. 집회와 시위, 노동과 농촌, 대중의 일상으로 찾아들어가 그 속에서 5월 광주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사회 변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그들을 조직하고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 불러오는 데 이들이 앞장섰다는 것이다. 현장성은 민중 예술의 장르와 장르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식을 창작하기도 했고, 문화 선전대로서 선전, 선동을 담당하면서 민중 예술의 내용과 형식의 확장,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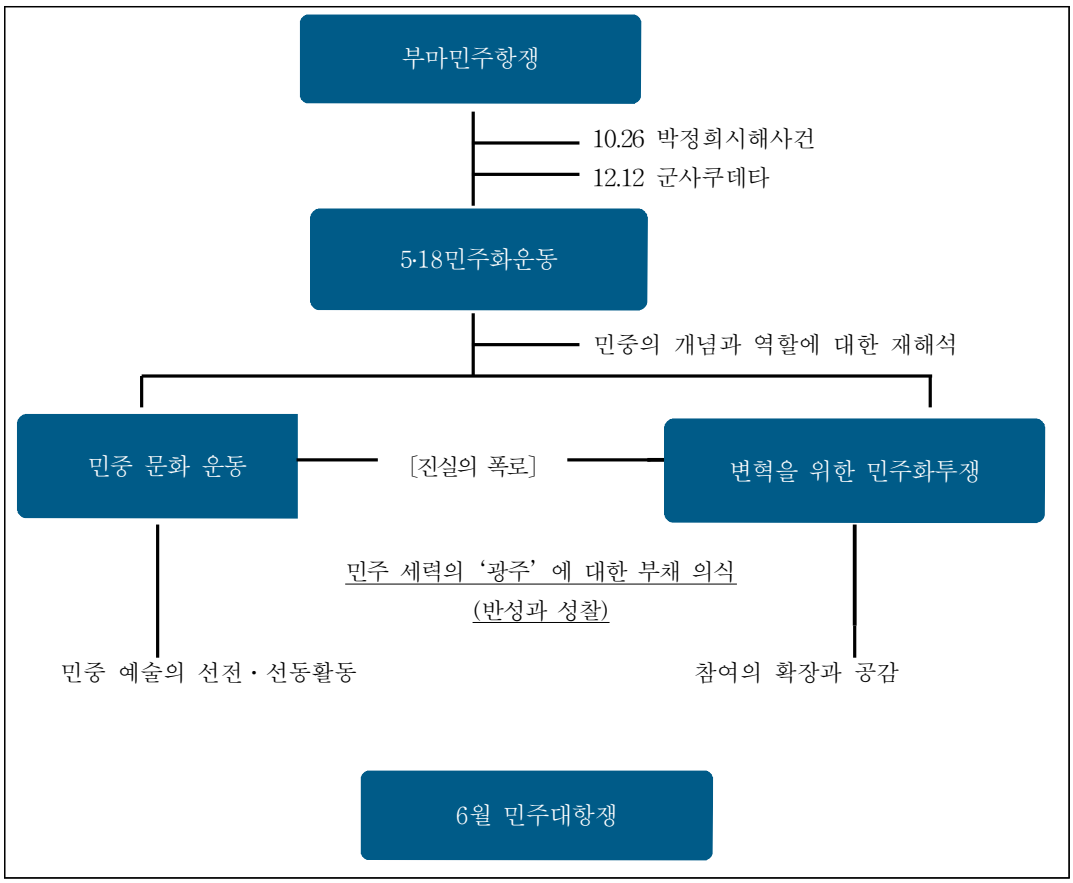
다섯째,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실체로서 민족 분단의 현실을 확인하고 민주주의 이행 못지않게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가들의 활동은 부마민주항쟁, 10·26박정희 시해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건, 12·12 군사반란, 5·17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의 일련의 한국현대사의 가장 격정적인 시간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고 민중들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 6월항쟁까지 나아갔다.

표 6. 민주화 운동의 주요 경과와 민중 문화 운동의 상관성 개념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한국 민중문화예술과 아시아 민주화 투쟁

광주 민중문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1991년 스리랑카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 행사와 함께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광주의 민중문화 운동은 스리랑카의 실종자 가족들과 광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스리랑카에서도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외치다가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피해자가 많았다. 국가 폭력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던 스리랑카 실종자 가족들은 광주의 영향을 받아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쟁할 수 있었고, 스리랑카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을 이끌며 국제사회에 스리랑카의 국가 폭력의 실체를 알리는데 공헌한 자얀티 씨는 매년 5·18기념재단에서 선정하는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67]

광주인권상으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령 '사나나 구스마오' 역시 동티모르 독립 투쟁 과정에서 광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실제 구스마오 대통령은 광주를 동티모르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국에 학교를 세우는 계획들을 추진하기도 했었다.[68] 이외에도 태국과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가족 모임도 해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5·18관련 기념품과 광주 민중 문화 운동 단체들이 제작한 노래테이프 등을 가져가 광주의 투쟁을 자국에서 재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태국의 '5월영웅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광주의 문화 운동가들과 5·18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광주에서의 진상 규명 투쟁과 민중 문화 운동을 전수받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주의 민중문화 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잔상 규명을 위한 투쟁의 경험과 역사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과정을 포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제도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민중문화 예술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

67) 5.18기념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518.org/sub.php?PID=030201
68) 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과 연대를 통해서 민중 문화와 민중 예술의 아시아적 가치를 확장하고 공유하는 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진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시 광주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이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기반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는 다담론적 개념으로서 문화가 아니라 한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진보적 문화'의 개념이었다. 이 논점에서 바라본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전후의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였다.

1970년대와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촉발된 사회변혁운동은 6월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1980년대까지의 시대와 공간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광주와 서울지역의 진보적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문예운동이 이후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 양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민중문화예술운동은 광주만행을 자행한 신군부의 잔인한 만행을 폭로하고 항쟁 기간 동안 공동체 과정에서 발현된 민중들의 활동상과 그들의 희생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유신독재로부터 강요된 민족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했으나 조직적이기보다는 개인과 개인들의 연대 수준이었고, 현장보다는 전시관과 계간지 안에서 가능한 수준이었다.

물론 탈춤과 마당극을 비롯한 전통연희 분야에서는 민중들의 삶을 반영하거나 사회적 현실을 풍자하고 대학 교정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 가능한 공간에서 풍물교실을 여는 등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인들도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 등을 조직하였고, 시론과 서평 등을 통해 사회적 비판에 앞장섰다. 임진택, 채희완 등의 다양한 시도와 활동, 그리고 백기완, 김지하, 양성우, 황석영, 조세희 등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과 국가주도형 개발독재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민중들의 삶과 고통을 담아내는 노력들이 있었다. 1970년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많은 시론과 서평을 할애했던 계간지 「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은 신군부 세력의 언론통폐합과 함께 폐간 당했다.

그러나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후에 문화,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는 보다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민족문화운동이 풍자와 해학의 현실 비판이었다면 1980년대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참여는 직설적이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직적이고 현장의 이슈와 직접 결합하는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5월시 동인들의 작품과 동인지 발간, 김남주 시인의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시작은 1970년대 김지하의 담시와는 전혀 다른 직설적 리얼리즘이었다.

문화와 예술인들의 장르가 결합되면서 총체극과 노래극 등의 다양한 공연이 기획, 연출되어 집회 및 현장에서 행해졌다. 1980년대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노래패들의 활동이었다. '젊은 청춘의 고뇌'가 1970년대 통키타와 포크송, 그리고 김민기 등에 의한 민요창작이었다면, 1980년대 노래패들의 활동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폭로하고, 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을 대변하고, 민중들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집회현장에서는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선전, 선동의 역할을 담당했다. 종교단체는 농민회와 노동자회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녹음하여 전국에 배포하는가 하면 노래극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녹음테이프로 제작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거나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삶과 투쟁 현장을 담아냈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변혁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개념이 재해석되었듯이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 역시 민중문화운동으로 조직화되고 '민중의 현실과 조국의 현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이 창작과 공연과 전시의 소재가 되었다. 창작 형식에서도 대형걸개 그림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전면에 내걸리고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판화에 광주의 오월과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새겨 넣었다.

판화 운동은 다른 장르들과의 결합도 다양하게 기획, 생산되었다. 오월시동인들과 광미공 회원들이 함께 제작한 오월 판화시집, 홍성담의 오월 판화교실, 노래집과 노래 테이프 등의 표지는 물론,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걸개그림과 전단지 등에도 그들의 판화가 자리했다. 1980년대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은 한국사회의 변화운동으로써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선봉대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과정에서 민중문화, 민중예술의 활동가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사례 중심의 실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정에 대한 상관성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고를 계기로 하여 1980년대 민중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당시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성과물들에 대한 체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이고 종합적인 수집 및 정리 사업을 통해 19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의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5·18민주희생자유족회 편, 『5·18성명서』, 2011.

5·18민중항쟁청년동지회, 『5·18민중항쟁증언록 - 무등산 깃발』, 도서풀판 남풍, 1987.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오월정신 계승과 통일의지의 결집, 광주통일미술제」, 『남도미술의 역사

김광억, 「정치적 담론기제로서의 민중문화운동」, 『한국문화인류학 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김남주, 『학살』 한마당 시선 2, 1990

김동춘, 「5·18, 6월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학술논문집, 5·18기념재단, 2007.

김선출, 『5월의 문화예술 - 기원에서 5·18기념사업까지』 도서출판 샘물, 2001

김준태, 홍성담, 『오월에서 통일로』, 빛고을출판사, 1989. 5.

김현채,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 - 무등산 깃발』 도서출판 광주, 1987.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2003년 제3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

루카치 외, 김정환, 백원담 역, 『민중문화실천론』, 화다출판사, 1984

문호연, 「문화운동 시론Ⅰ」, 『문화운동론』, 도서출판공동체, 1985.

민중문화 운동연합, 「민중 예술 한마당, 이야기 마당」, 1987. 7. 15.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1989 홍성담 오월판화전 도록』, 5·18기념재단, 2006, 5.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85문화선언 - 참 민중 해방과 참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운동을 향한 대열을 가다듬자」, 1985. 4.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중문화의 새로운 마당을 위하여」, 『민중문화』 창간호, 1984. 6.

박주관 외,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어라』 도서출판 한마당, 1983

배종민, 「5월미술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5

오월시 동인지 제4집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도서출판 청사, 198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왕치선, 「대문예인 5차세미나 발제문」, 2016. 9. 26,

이금희, 『5·18민중항쟁증언록 - 무등산 깃발』, 5·18민중항쟁청년동지회, 도서풀판 남풍, 1987

이남희, 유리, 이경희 옮김 『민중만들기』, 470쪽~471쪽 휴마니스타, 2015.

이승철, 「오월문학포럼-통일을 대비하는 오월문학:오월문학사 정립을 위한 문학포럼」, 2018. 5. 19

이태호, 「5월 미술운동의 회고와 반성」, 『민주주의와 인권 2003년 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

이형숙, 「루복의 예술체계」, 『러시아 연구』 제1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3

임종영, 『호남문화연구』 제57권 '1980년대 광주지역 걸개그림이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정명중, 「광주의 5월문화운동」, 『아시아 문화』 2015년 5월호,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5

정미라, 「광주의 문화담론과 5·18」,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정해구 외 2인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연구 총서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조대협,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운동문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채희완, 「마당굿의 과제와 전망」, 『문예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도서출판 한마당, 1991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5월의 봄 출판 168~169쪽

한겨레신문, 「그해 오월 민주주의를 쓴 사람들」, 2018. 5. 8.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진압의 사전계획설에 관한 검토」,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타임라인과 관련한 선행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국방부, 2019. 7

허연식, 「직설의 노래로 타살의 시대를 넘었던 그대」, 광주인 칼럼, 2013. 6. 7.

홍성담, 『홍성담, 「민중문화연구회 선언-광주 5월은 민족통일의 큰 흐름 속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 『민중미술과 함께 보는 80년대 민중, 민주운동자료집(Ⅱ)』,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제1선언문 - 미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1980. 7. 「제2선언문 - 신명을 위하여」 1981. 12.

홍성담, 『홍성담 오월판화전 도록』, 5·18기념재단, 2006, 5.

황석영, 「문화 운동의 반성과 전망」,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창립총회 보고서』, 민중문화 운동협의회1984. 4. 30.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증보판, 2017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1983

충북대학교 신문 1995. 10. 2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ttps://archives.kdemo.or.kr/main)

5·18민주희생자유족회 편, 『5·18 성명서』 2011.

http://www.gwangjuart.com/index.php?code=0205&lcode=3

https://fishes1272.blog.me/221305687237

https://www.neolook.com/archives/20180905c

https://www.youtube.com/watch?v=KSBpChVun9M